Weekly 공감

2012.02.22 NO.147
gongga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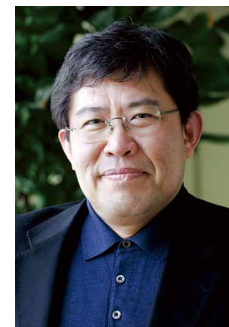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3.26~27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 P23~39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기초과학연구원을 아십니까? P12~14

장애인 시설에서 음악봉사 펼치는 '국세청 사랑나눔봉사단' P42~43

표지인물 켄 크로포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 P20~21

더 큰 대한민국 완성의 길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의 정치학자 레이 클라인 교수는 한 국가의 힘의 원천을 나타내는 공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공식은 P=(C+E+M)×(S+W)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P는 종합적 국력, C는 국토면적과 인구수 등 국가의 외형적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한편 E는 경제력을, M은 군사력, 즉 물리력을 의미하고, S는 국가의 전략을, W는 이에 동의하고 따르는 국민의 의지를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앞쪽 괄호 안의 변수들, 곧 (C+E+M)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국력을 나타내고 뒤쪽 괄호 안의 (S+W)는 무형의 국력을 나타낸다. 클라인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유형의 국력과 무형의 국력을 곱한 것이 총체적 국력이 된다. 국토면적과 인구수는 주어진 변수에 가깝다. 이들을 당장 늘릴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변수는 다르다. E와 M은 나라가 작아도 커질 수 있다. 더구나 무형의 국력에 이르면 조정의 여지는 더욱 커진다.

세계를 둘러보면 영토가 넓고 인구수가 많으면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강대국도 있지만 규모는 작으면서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강소국들도 적잖다. 이들은 규모의 열세를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보완하면서 국가의 전략과 이를 실행하려는 국민의 충만한 의지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유형과 무형의 국력이 잘 조화를 이룬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사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선진화의 기치를 높이 걸었고 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대적인 국격(國格)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G20 의장국의 역할을 한 부분이라든가 금융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극복해낸 부분 등은 다른 나라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우리의 상대적 국격을 제고시켰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6.2퍼센트로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다른 국가들이 위기를 맞아 정체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시원하게 전진함으로써 상대적인 위상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선진화는 국가적 전략과 국민 의지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는 유형의 국력 곧 경제력과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무형의 국력 특히 국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켜 부족한 '2퍼센트'를 보완해 선진국 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에서 답보 중이다. 게다가 최근의 상황은 우리에게서 무형의 국력이 많이 줄어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이 보여주는 극심한 '표'퓰리즘과 이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소득격차의 심화와 저성장이 겹쳐지고 분노와 불신이 결합됨으로써 상당 부분 무형의 국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경제의 선진화는 결국 전략과 의지라는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는 싸움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유형의 국력 곧 경제력과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상당 부분 부족한 무형의 국력 특히 국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켜 아직도 부족한 '2퍼센트'를 보완해 선진국 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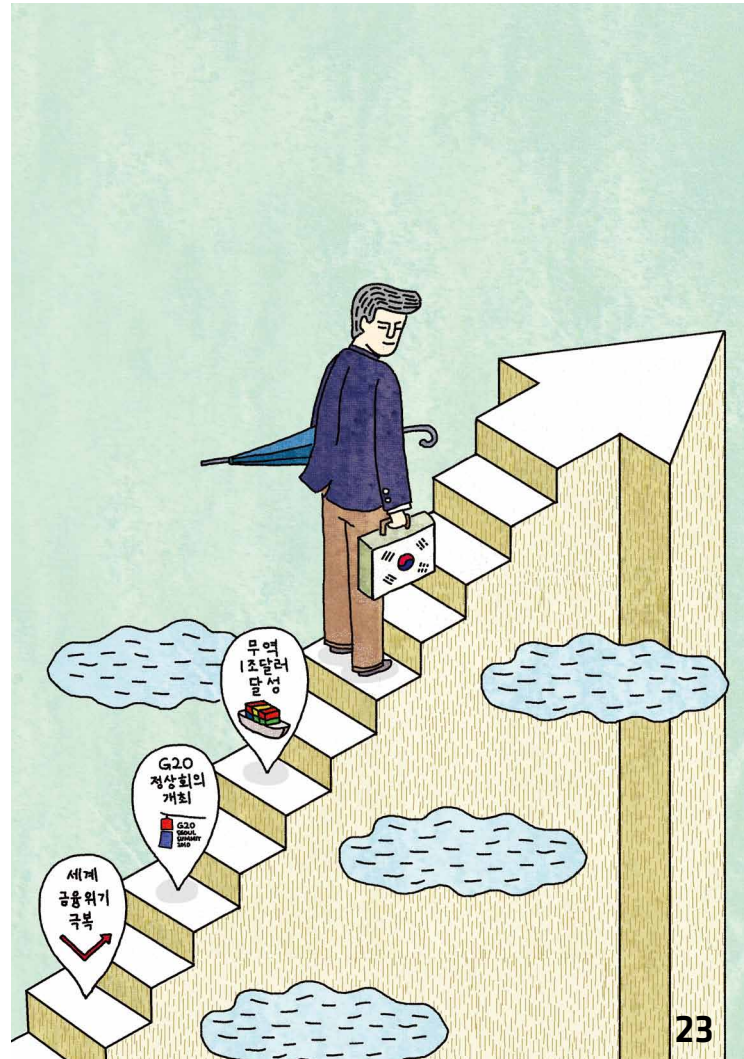
Contents

147호 2012.02.22 통권 248호

표지 이야기 | 2008년 여름 주말 일기예보가 6주 연속 틀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외국인 전문가를 2009년 8월 기상청 고위공무원으로 영입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 일기예보 어떻습니까? 잘 맞죠. 그 중심에 켄 크로포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이 있습니다. 사진·한준호 기자

기획특집

살기 좋은 대한민국 여러분이 해냈습니다

지난 4년간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선진화'였다. 경제는 물론 행정과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선진화를 추진했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는 등 경제적인 성장을 이어갔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였다.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다양한 공생발전 방안을 도입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2.2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8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K팝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필요

145호 '더 큰 대한민국 자신감의 시대 열었다' 기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K팝에 열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K팝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제2의 한류를 이끄는 K팝에 대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고 우리 대중가요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질의 콘텐츠 개발로 한류의 흐름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김준영 (25·대학생·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얇지만 알찬 기사들 덕에 여행이 즐거워

서울에서 울산으로 가는 KTX 좌석 등받이에서 145호를 발견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다양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여수엑스포 소개와 거제를 보여준 감성여행 기사는 후일 휴가지로 여수와 거제를 꼽을 정도로 매력적이더군요.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공감카툰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덜 말하는 것이 더 말하는 것'이라더니 얇지만 군더더기 없이 알찬 이 책 덕분에 서울~울산의 거리가 무척 짧았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좋은 책 소개나 화제의 시 등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진 (57·회사원·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전자주민증은 위·변조 막을 최선의 대안

146호 '전자주민증 정보 유출 우려 지나치다'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킹을 비롯한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인해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려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준 이번 기사로 인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지 (29·회사원·대구 달서구 죽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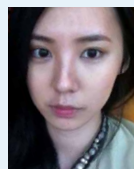
캄보디아에 불고 있는 과학 한류 뿌듯

캄보디아에 과학교육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과학 한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146호 기사를 읽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인재들에게 과학기술을 전수하는 모습을 보니 격세지감이란 말이 절로 떠오르더군요. 어느덧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 여러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발전 모델로 꼽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과학기술 외교는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다훈 (30·회사원·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독자 인터뷰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이야기를 많이 다뤄주세요"

정민욱 (26·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정민욱씨는 국내 의류브랜드 회사에 다니는 디자이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도 관심이 있는 정씨는 관련 정책이나 도움이 될 만한 생활정보를 얻기 위해 〈위클리 공감〉을 열심히 보고 있다. 정씨는 "디자이너라고 하면 정부 정책과는 담 쌓고 사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생활 정책들을 꼼꼼히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을 어떻게 접하게 됐나요.

"지난해 동사무소에 업무차 들렀다가 간행물 비치대에서 〈위클리 공감〉을 봤습니다. 정책지라고 해서 다시 놓을까 하다 대기시간을 보낼 겸 읽었는데 다양한 정보가 가득 실려 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뒷부분에는 말랑말랑한 기사들도 많아 기분 좋게 책을 덮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감동을 받은 뒤 바로 〈위클리 공감〉을 정기구독하게 됐습니다"

146호에서 어떤 기사가 기억에 남나요.

"'고마워요! 맞춤형 정책' 기획특집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을 돕고, 다문화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는 기사에서 우리 사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익한 정책들은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재기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위클리 공감〉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공감이란 설명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야 진정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위클리 공감〉에서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인물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김이슬 인턴 기자

알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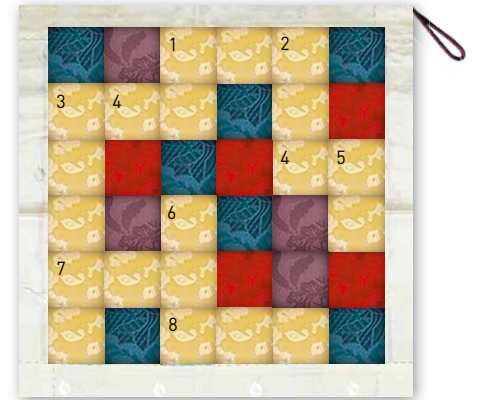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컬처 메신저를 모집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ARKO)는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제2기 ARKO 대학생 서포터스 컬처 메신저'를 모집한다. ARKO 서포터스 컬처 메신저는 6개월 동안 문화예술 사업 현장 취재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미션을 수행한다. 선발인원은 10명으로, 전국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문화예술 분야 파워블로거와 SNS 활동 가능자는 우대한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통신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기 컬처 메신저에게는 위촉장, 기념품, 명함을 비롯해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공모기간 | 3월 14일까지
지원자격 | 재(휴)학 중인 전국 대학(원)생
활동기간 | 4월~9월(6개월)
활동내용 | 월 1회 아이템회의 참석, 주제에 맞는 월 2건 이상의 기사 및 동영상 제작, 다양한 테마의 기관 행사(공연, 전시, 심포지엄 등) 참여 및 홍보
지원방법 |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이메일(newme@arko.or.kr)로 접수, 지원서 양식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다운로드, 메일 제목은 '서포터스지원_이름'으로 지원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마케팅부 ☎02-760-4544**

과학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눈에 귀에 쏙쏙! 내가 만드는 과학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 및 3인 이하 팀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과학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동영상·플래시·애니메이션·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UCC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출품작은 본 공모전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 및 팀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수상작은 추후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공모기간 | 3월 11일까지
참여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및 3인 이하 팀 참가 가능)
공모주제 | 과학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
접수방법 | 한국연구재단 마음잇기 캠페인 블로그(happyscientists.tistory.com)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한 뒤 출품작과 대표메일(ucc_contest@nrf.re.kr)로 제출
출품요건 | 공모전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팀의 순수 창작물, 동영상·플래시·애니메이션·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UCC로 제출
문의 | **운영사무국 ☎02-2016-7240**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3월 7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어떤 사안에 대해 양쪽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 내놓는 안건.
3. 오직 한 곬으로. "OOO 학업에만 열중해야 한다."
4. 조선 시대 포도청에 속해 순찰과 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던 병졸.
7. 소아시아 반도 서쪽 히사를리크 언덕에 있던 고대 도시국가. 그리스 시인 호머(호메로스)의 서사시 무대로도 알려졌죠. 아킬레스도 등장하고, 이것 이름이 붙은 전쟁의 목마도 유명하죠.
8. 원래는 시세가 오를 가망이 있는 주식. 어떤 분야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로 많이 쓰이죠.

세 로

1. 가운뎃손가락.
2. 전파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장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휴대폰 등에 달려 있죠.
3. 관현악단.
5. 학교 학생이 정해진 교과 과정을 모두 마치는 것. "OO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이다."
6. 경찰청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로 임명된 가수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죠.

〈Weekly 공감〉 145호(2월 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외환보유고 **3** 개간지 **5** 수온 **7** 교가 **8** 여수
세로 1 외양간 **2** 유격수 **3** 개통 **4** 지니계수 **6** 온실가스

〈Weekly 공감〉 145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경훈 · 부천시 원미구 상2동
김현준 · 대구시 수성구 지산2동
박진경 · 전남 여수시 문수동
양옥자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장익준 ·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 뽑는다

2월 23일부터 한 달간 민·관합동 집중단속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폭력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시민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일반 국민의 신고도 반영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된다.

스포츠 조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데 정부와 민간, '국민여동생' 아이유도 나섰다. 아이유는 지난 2월 10일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이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시작하는 이번 단속은 2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지방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 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풍속업소의 음란·퇴폐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과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09~22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의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며, 법규를 준수해 영업하는 업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범국민 신고체계 운영'을 통해 계도와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로 제보 접수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지방교육지원청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위법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고발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국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2월 23일 서비스 개시 예정)'를 비롯해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일반 국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코너를 활용하여 직접 장관에게 제보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제보사항에 대해 신속히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도 '학교폭력 대책 TF' 출범식 가져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새학기 시작을 전후하여 연 2회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펼친다.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2월 13일 '학교폭력 대책 TF' 출범식을 갖고 학교폭력 근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찾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구축하고 국내외 사례, 논문, 제도 등을 수집하여 학생용(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부모용·전문가용으로 세분화한 종합DB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활용해 학교 단위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법제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유, 학교폭력 근절 홍보대사로 나서

'국민여동생' 가수 아이유도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선다. 경찰청은 2월 10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아이유를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경찰·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감을 없애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자연스러운 피해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과 선도에 범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아이유는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면서 "연예인이라는 특수함 때문에 나 역시 학교생활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청소년들이 폭력과 왕따가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경찰과의 연결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아이유는 "1회성 단순행사가 아니라 팬클럽 회원들께도 널리 알려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G

글·박경아 기자

“경험도 쌓고 성공 개최에 힘 보태야죠”

5대 1 경쟁 뚫고 뽑힌 행사진행요원 7백48명 준비작업 착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여러 분야 자원봉사자들도 분주하다. 최근 핵안보정상회의 행사지원요원들이 발대식을 가졌으며,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국제 어린이 평화 미술전’ 시상식이 개최되고, 홍보대사 박정현의 ‘피스송’이 인터넷에서 울려퍼지는 등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김동우 기자

‘우리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뛴다!’ 핵안보정상회의 행사지원요원으로 활동 중인 황대윤, 이승아, 안성진씨(왼쪽부터).

오는 3월 26, 27일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가 한창인 강남구 삼성동의 코엑스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의 청년 3인을 만났다. 지난 2월 2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2012 핵안보정상회의 행사지원요원’으로 활약 중인 안성진(26·남), 이승아(25·여), 황대윤(27·남)씨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승아씨는 약 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정상회의 행사지원요원. 총 7백48명의 행사지원요원은 참가대표단의 출입국, 참가자 등록, 회의장 운영, 미디어센터 운영, 내외신 기자단의 취재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지원하게 된다.

‘회의 참가의 첫 단계’인 대표단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이씨는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는 “현장업무를 맡다 보니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국제정치나 외교안보에 관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 저에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회예요.”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죠”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하게 된 소감에 대해 황대윤씨는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밝혔다.

“서울 G20 정상회의 당시에 미디어센터 매니저로 근무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업무를 지원했어요. 경제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회의가 G20라면 핵안보정상회의는 안보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회의예요. 불과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이런 큰 행사를 연달아 개최할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워요.”

다섯 살에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황씨는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목표로 ‘열공’ 중인 수험생이다. 그런 그가 전공과 관계없는 두번의 정상회의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달라진 조국의 위상’에 대한 감격에서였다.

“어릴 때 봤던 한국과 2009년 다시 만난 한국의 모습이 너무 달라 놀랐어요. 서울 G20 정상회의나 핵안보정상회의 모두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에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취재기자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안성진씨도 황씨와 똑같은 감격을 얘기했다. 세종대 호텔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안씨는 컨벤션 산업에 관심이 높아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는데, “국제적인 행사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위선양에도 일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G20 2년 만의 정상회의, 글로벌 리더국 실감”

국익에 이바지한다는 보람으로 열정을 갖고 일하는 이들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점도 있다고 토로한다.

“취재기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 서류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계셔요. 세계정상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보니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점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보에 관한 의제를 다루는 회의가 보안에 소홀하면 안되잖아요.” 안성진씨의 당부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나자 이들이 생각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 의미에 대해 묻자 안성진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또다시 국제적인 행사의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고 국가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안씨의 대답에 다른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인다. 황대윤씨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소식을 듣고 자원봉사로 지원을 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또다시 정상회의가 열렸다”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리더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이어서 “이번 정상회의는 핵안보에 관한 국민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울 기회”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분단국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이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위험에 대해 대범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회의를 기점으로 사회 전반에 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진씨는 “일본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일상을 뒤바꿀 만한 큰 위험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핵안보에 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에 안보인식 다질 계기 돼야죠”

“비록 시작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열었지만 핵안보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안보에 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핵으로 인한 사고나 테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승아씨의 바람처럼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지침을 세우는 데 이번 정상회의가 하나의 기점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글·이윤진 객원기자

‘국제 어린이 평화 미술전’

국내 분야 대상에 하형묵 · 김문주 어린이

회화부문 김문주양의 대상작.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기념 ‘국제 어린이 평화 미술전’ 시상식을 2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미술전은 국내 및 50여 개 정상회의 참가국 어린이들에게 ‘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계’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분야는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어 총 5천4백74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시상식에서는 모두 1백38명의 입상자 및 우수 지도교사·우수학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번 국내 공모전에서는 ‘핵전쟁 뒷걸음질하여 지구 평화 한걸음하자!’란 제목의 포스터를 그린 하형묵(부산 안민초5)군이 포스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는 한마음’이란 제목의 그림을 그린 김문주(경기 용인 초당초3)양이 회화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해외 어린이 작품은 주한 외국공관을 통해 2월말까지 참가국별 2, 3작품씩 출품받고 있으며, 국내 수상작과 함께 정상회의 관련 행사장에 전시된다.

이번 미술전을 통해 수집한 참가국 어린이들의 그림은 전국 다중이용시설(전철역사 등)에서도 순회 전시할 예정(3월 28일~4월 17일)이다.

지난해 6~9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발견된 붉은발말똥게들이 서귀포 약산사 선궷내의 대체서식지에 방사되고 있다. 붉은발말똥게들이 적당한 거리로 분산될 수 있도록 GPS가 동원됐다. 겨울이면 동면에 드는 맹꽁이. 강정마을 사업부지 내 맹꽁이 유생들도 제주돌문화공원에 새 터를 잡았다(오른쪽 위 사진). 대체서식지로 가기 위해 통 안에 포획되어 있는 붉은발말똥게.

제주해군기지, 자연이 숨쉬는 항구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걸맞게 친환경 '그린 베이스'로 건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도에 들어서게 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는 친환경적 '그린 베이스(Green Base)'로 건설 중이다. 환경 보전과 오염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근차근 이행하며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항만과 육상 시설 건설에 있어 자연을 최대한 살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수원청개구리, 따오기, 금자란 등 우리 땅에 살고 있는 57종의 생물이 새롭게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다. 반면 완전히 사라진 바다사자, 도래(渡來)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연간 60만~1백만 개체),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황기 등 33종은 해제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도 이렇게 개체 수, 개체군 수, 분포지역 등에 따라 지정 혹은 해제되고 재지정 되거나 등급이 바뀌기도 한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가운데에는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둘은 이번 개정(안)에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 그대로다.

붉은발말똥게는 바닷물과 이어진 하천 지역에 서식한다. 성체가 알을 배면 바다로 내려가 알을 낳고, 알에서 태어난 유생은 어느 정도 자란 뒤 하천으로 올라와 육상생활을 한다. 맹꽁이는 연중 땅속에 서식하며, 야간에만 나와 먹이를 찾는다. 우기(雨期)에만 짝 찾는 수컷 맹꽁이 울음소리가 요란할 뿐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맹꽁이 등 멸종위기 2종 대체서식지로 이식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부지에서도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해 대체서식지로 이식을 마쳤다.

제주기지사업단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5~9월 강정마을 사업부지 안에서 붉은발말똥게 3백여 개체를 포획해 서귀포시 대포동의 약산사 선궷내로 '이사'시켰다. 또 맹꽁이도 어린 유생이 지난해 사업부지 내 배수로에서 발견됨에 따라 6~9월 사이에 모두 9백여 개체를 제주시 조천읍의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옮겼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아니지만 사업부지 내 용천수에서 발견된 새뱅이(민물새우)도 환경부 자문을 받아 지난해 7월 5천3백여 개체를 강정마을 동쪽의 강정천에 방사했다.

'구럼비바위'와 주변에 조성될 수변공원 조감도.

부지 내 '구럼비바위' 주변 수변공원 조성

이밖에도 제주기지사업단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산호 서식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구역 안은 해저지질이 모래여서 연산호가 살 수 없는 환경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업구역 동쪽의 범섬(해군기지 방파제로부터 1.7킬로미터 거리), 문섬(5.8킬로미터), 섶섬(9킬로미터) 등에 걸쳐 있는 연산호 군락지(유네스코 지정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와도 거리가 있어 해군기지건설이 연산호 군락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기지사업단은 연산호 군락지 보호를 위해 범섬 북서쪽 지역에 연산호 자연착생을 위한 피라미드형의 특수 콘크리트 구조물 10개를 설치해놓았다.

또한 사업부지내 해안의 '구럼비바위'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낮다'는 평가와 전문가 의견이 있었지만, '구럼비바위를 일부 자연 상태로 두고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기지사업단은 "멸종위기종의 이식에 그치지 않고 이식 개체의 서식 상태, 연산호 환경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부지 내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보호종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기지사업단은 2007년 4월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가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이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공동생태계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제주기지사업단은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관측 부유사 농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2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상 오탁방지망 설치 ▲공사장 주변의 방음패널, 방진망 설치 ▲공사용 진출입로의 세륜시설 및 측면 살수시설 설치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적용해왔다.

해군기지 항만시설도 부두 안에 맑은 물이 자연스레 드나들도록 항내외 해수 교환시스템과 해수 유통형 부두를 도입한다. 태양광 등대, 파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들어서게 된다. 부두의 해수면 아래에는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된다.

육상시설 역시 곳곳에 완충 녹지, 옥상 녹화와 자연채광창, LED 가로등 탄소발생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 제주와 어울리는 세계적인 '그린 베이스(Green Base)',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지향하는 미래. 글·박경아 기자

제주해군기지의 환경 관련 협의 일지

시기	내용
사전환경성 검토	
2007년 4월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 결정
2007년 8월 ~2008년 8월	현지조사 및 환경성 검토
2008년 10월 31일	사전환경검토서 협의 완료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기로
공동생태계 조사	
2009년 1월	공동생태계조사단 자문회의 –환경부 6명, 자문위원 6명, 주민대표 6명(찬성 2, 반대 4)
2월	공동생태계조사 실시
3월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보고회(주관 환경부)
6~7월	공동생태계조사단 및 주민 의견에 따른 하절기 추가조사
환경영향평가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주도에 제출
4~5월	주민공람 및 설명회
6월	공청회 개최
7~9월	평가서 본안 협의 및 1, 2차 보완
9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12월	제주도 의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원천기술 역량 선진국 수준으로 키운다

기초과학연구원, 연내 세계적 석학 최대 25명 연구단장으로 영입

한국 기초과학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됐다. 지난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해 세계 10대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오는 5월에 1차로 연구단장을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게 된다. 창의성과 개방성, 자율성과 수월성을 통해 한국 기초과학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초과학에 투자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은 최근 미국 보스턴에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명회를 다녀왔다. 관심이 뜨거웠다. 한국계 과학자들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의 과학자가 오 원장에게 IBS에 지원하는 방법을 문의해왔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IBS가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업과 기술을 성장시켜왔다. 후발주자임에도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정상에 섰고 IT산업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도 마찬가지다. 총력적인 기술 추격전에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추격 전략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됐다.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어렵다. 유일하고 최초이며 획기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힘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응용기술과 달리 우리의 기초과학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2017년까지 5조 투자… 세계 10대 기관 육성

정부는 부족한 기초과학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IBS를 설립했다. 2017년까지 연간 최대 7천억원씩 총 5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초과학 분야 세계 10대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IBS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개의 연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 연구단장 모집 공고를 냈고 3월부터 심사를 시작해 5월에 첫 연구단장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3회에 걸쳐 연구단장을 모집해 최대 25명의 연구단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연구단은 50명 내외로 구성되며 50개 연구단이 모두 모이면 IBS의 상근인력은 3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것은 연구테마를 정하지 않고 연구단장을 모집한다는 점이다. 기초과학 연구 영역 안에서 우수한 연구단장부터 선정하는 '사람 중심'의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수월성과 독창성, 모험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오 원장은 "기초연구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미리 연구 테마를 정해놓기보다 사람 중심의 운영을 해야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사람이 우수하면 우수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BS의 목표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연구단장으로 영입하는 것이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적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왕에 세계적인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터에 국적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 이를 위해 세계 어느 대학이나 연구기관보다 나은 대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연구자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브레인 리턴(Brain Return) 500'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우수한 중견·신진 과학자 5백명을 불러들여 차세대 기초과학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오 원장은 "연구단과 별도로 중견·신진 과학자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며 "한국인은 물론 한국계 외국인도 영입 대상"이라고 말했다.

3년 단위 성과 평가로 장기연구 보장

각 연구단은 해당 연구단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연구내용과 연구인력, 예산배분 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연구비는 3년 단위로 지원된다.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는 3년 단위로 진행한다는 의미다. 대개의 정부 출연 연구원이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잦은 평가는 오히려 연구 의욕을 떨어뜨려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초과학은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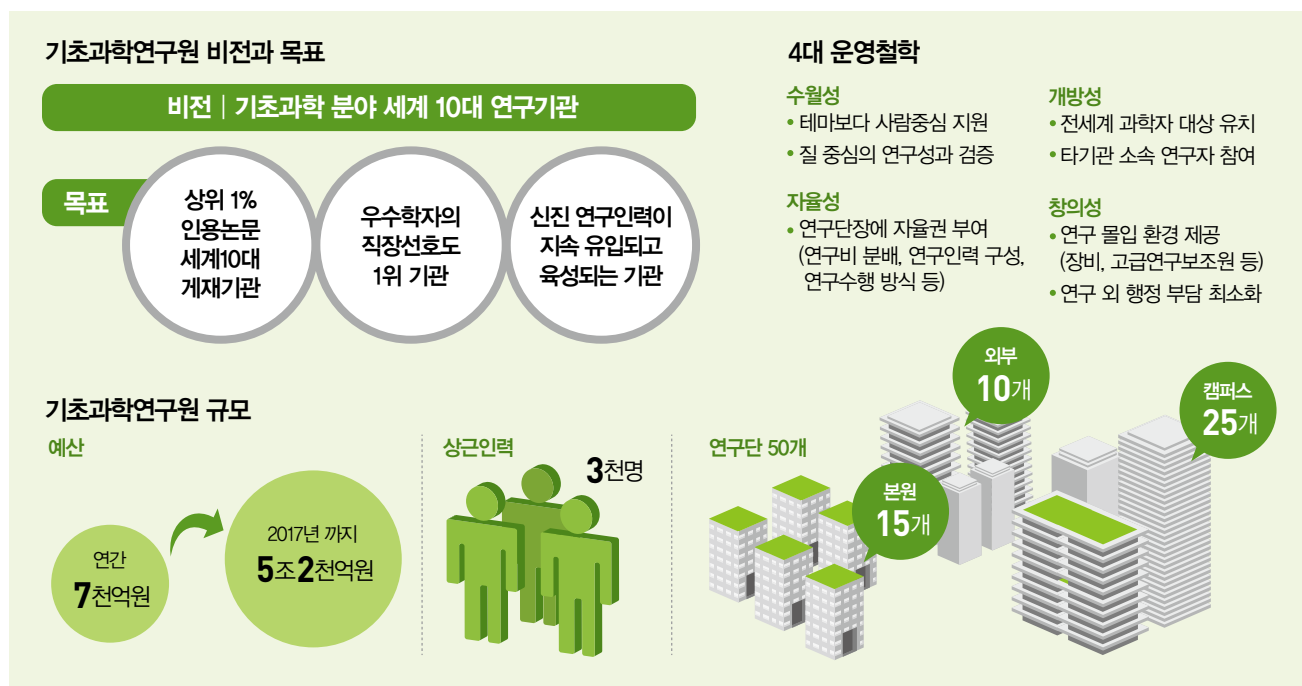
연구단은 우수인력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외부인력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신진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연구단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크게 3가지 유형이다. IBS 내부에 설치되는 본원 연구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과학기술 특화대학이나 출연 연구소에 설치되는 캠퍼스 연구단, 일반 대학 등에 설치되는 외부 연구단이 그것이다.

본원과 캠퍼스 연구단은 IBS 소속이지만 외부 연구단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원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학교수 등이 직장을 옮기지 않고도 연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50개 연구단 중 본원은 15개, 캠퍼스는 25개, 외부는 10개가량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월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IBS는 중이온가속기연구소도 설립한다.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스템을 가진 부설연구소 형태로 운영한다. 중이온가속기 개발과 운영, 가속기 활용 등을 연구하게 된다. 현재 중이온가속기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가속기 개념설계를 보완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개념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상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의 페르미연구소 등 해외의 가속기연구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몇 개의 연구소와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G

글·변형주 기자

기초과학연구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 10대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대덕단지 내 기초과학연구원 조감도.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지원만 충분하면 노벨상도 머지않았어요"

"우리가 기초과학 강국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황무지는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수한 과학자들이 적잖습니다. 노벨상을 아직 수상하지 못했지만 그 언저리에는 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면 머잖아 노벨상 수상자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원장은 "연구단장은 최대한 '깐깐하게' 선정하겠지만 선정 후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정 원장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독창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5명의 연구단장을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3차에 걸쳐 모집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1차 모집 신청을 받아 5월에 첫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25명이 목표지만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지원자가 없다면 뽑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최소한 20명은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IBS의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 풀은 넉넉한지요.

"10년 전이라면 10명도 뽑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과학계가 많이 발전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이 이제 IBS 같은 연구기관을 만들 때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우리 과학계의 역량이 무르익었다는 의미죠. 지원만 충분히 제공되면 의미 있는 성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선정평가위원장이 결정됐다지요. 어떤 분이신가요.

"피터 풀데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소장입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소인 막스플랑크-복잡계 물리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IBS가 벤치마킹한 곳이어서 IBS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연구단장을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구테마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선정하면 나중에 한 분야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만 연구분야를 막론하고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연구단장의 구성과 세계적인 연구동향 등을 살펴 다양성을 적절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우수 인재 영입이 IBS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설명회를 나가보면 예상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과학계에 한국 정부의 기초과학 지원 의지가 강하다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설명회와 〈네이처〉 등 학술지 광고 등을 통해 IBS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G

글·변형주 기자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박용호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

이돈구 산림청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임수경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조명철 통일교육원장

조석준 기상청장

민간·외국인 전문가 과감한 수혈로 주목

여성의 고위공직 문호 넓혀… 소수자 발탁도 눈에 띄게 늘어

"인사가 만사!" 인사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인용하는 표현이다. 이명박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사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자는 의미에서 이명박정부 들어 처음 시도한 인사혁신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 소개한다.

공무원 순혈주의 탈피

이명박정부는 눈길을 끌 만한 인사를 많이 단행했다. 이 중에는 최초로 시행한 인사도 적지 않다. 우선 공무원 중심의 인사를 지양하고 민간전문가를 각 분야에 과감히 발탁한 것이 돋보인다. 현재 재직 중인 인사로는 교수 출신의 이돈구 산림청장, 기상전문 캐스터였던 조석준 기상청장, 경영컨설턴트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경북대 축산학과 교수였던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언론인 출신 최초 국방부 대변인을 맡은 김민석 대변인, 첫 외국인 전문가로 임명된 켄 크로포드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장, 첫 여성 언론인 출신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 등이 있다. 이인실 전 통계청장은 민간 출신 여성 청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최초' 기록 여성 기관장 많아져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 문호도 넓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초의 여성 위원장인 김영란 위원장이 재임 중이고,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부녀(父女)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진기록을 갖고 있다. 송명순 장군은 전투병과 출신 최초 여성 장군이고, 이은수 장군은 군법무관 출신 최초 여성 장군이다. 임수경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처음 임명된 여성 본부국장이다. 김승희 식약청 차장은 식약청 최초 여성 실장급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식약청 최초 여성 부기관장이다. 이원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 최초 국장급 여성 기관장이고, 김명수 광주지방기상청장도 기상청 최초 여성 지방기상청장이다.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행시 출신 첫 여성 실장급 공무원이었고, 전은숙 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식약청 최초 여성 지방청장을 지냈다.

주류 중심 지양하고 소수자에도 문호

주류 중심의 인사를 지양하고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발탁한 것도 눈에 띈다. 통일교육원장에 탈북자 출신 조명철씨를 임명했고, 외교통상부차관에는 비서울대 출신인 민동석(한국외대), 박석환(고려대)씨가 재직 중이다. 학사 출신의 장군도 탄생했다. 학사3기 정현석 장군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윤시영 소청심사위원은 경찰 출신 첫 소청위원이고, 박혜경 식약청 영양정책관은 식약청 최초 장애인 여성국장이며,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첫 내부 승진 케이스다.

전문성·성과 위주 인물 초빙

직급 중심의 인사가 아니라 전문성과 성과 위주의 인사를 한 사례도 많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1차관은 직선 교육감(3선) 출신이고,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군 출신이 아닌 데다 조달청장을 지냈다.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지냈다.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약청 최초 내부 출신 청장이다. 장관을 지낸 사람을 국·실장급 자리에 임명하기도 했다. 배순훈 전 현대미술관장(실장급)과 이상희 전 과천과학관장(국장급)이 대표적 사례다. 백용호 전 국세청장도 장관급 경력자를 차관급 기관장에 임명했다는 점과 최초로 경제학자 출신 외부인사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지역을 망라한 인재 등용

지역편중 인사를 탈피해 지역을 망라하는 인재를 등용한 것도 특징이다. 영남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 전남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2010년 10월 1일부터 재직 중이다. 김 총리는 조용하면서도 진정성이 돋보이는 리더십을 발휘해 호평받고 있다. 김 총리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 추도식에서 일부러 우산 없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조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도 전남 출신이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전북이 고향이다.

충북 출신으로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돈구 산림청장·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충남 출신으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등이 있다. 강원도 출신 인사도 많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유영숙 환경부장관, 최규연 조달청장, 이수원 특허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부처별 상호균형·견제 시도

부처 중심의 인사 대신 부처별 상호균형과 견제를 시도한 것도 돋보인다.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감사원 국장 출신이고 박종기 감사원 감찰관은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홍지욱 검찰청 감찰부장은 서울남부지원 판사였고, 김일태 경찰청 감사관은 감사원 과장 출신이다. 문호승 감사원 감사연구원장은 감사원 과장을 지낸 후 국세청 감사관에 임명됐다가 감사원으로 복귀했다.

공공기관장에 전문가 우대

공공기관장에 전문가 중심의 인사를 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귀화자 출신으로 처음 공기업 사장에 임명됐다. 민간 CEO 출신이 사장에 임명된 사례로는 김중겸 한국전력공사 사장, 남영우 대한주택보증 사장,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이 있다. 김쌍수 전 한전 사장과 류철호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민간 CEO 출신이다. 내부승진 사례로는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조계륭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있다.

기금운용 또는 증권 분야 민간 전문가가 임명된 사례로는 국민연금공단의 박해춘 전 이사장과 전광우 현 이사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진만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주성도 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진영호 전 군인공제회 CFO 등이 대표적이다. 강혜련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여성 학자가 임명됐고, 권선주 IBK 부사장은 내부에서 여성이 임명된 사례다. 이국희 농산물유통공사 감사는 여성이, 홍민 전 88관광개발 사장은 보훈대상자가 각각 임명된 사례다.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창립 이후 최초 여성 총재이고, 신혜경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은 비공무원 출신의 첫 원장이다. G

글·박영철 기자

사상 첫 민간인 출신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민간·공직 장점 융합… 강한 공무원 '양성'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62년 중앙공무원교육원 역사상 최초의 민간인 출신 원장이다. 민간에선 변화·혁신 전문가, 교육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등으로 이름이 높았다. 취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몰라보게 바뀌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교육 현장은 활기차졌다는 평가다. 교육만족도가 향상됐음은 물론이다.

한준호 기자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를 모토로 공무원 교육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융·복합'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6월 그해 행정고시를 패스한 3백여 명의 신임사무관들은 한 특전부대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려야 했다. 여성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입대한 것은 물론 아니다. 신임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일환이었다. 2010년 취임한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의 아이디어였다. 안보의식과 담력을 함양하기 위한 현장교육이었다고 윤 원장은 설명한다.

"신임사무관 교육과정에 안보교육이 있는데 전방부대를 견학하고 밥 먹고 오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이래서야 제대로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들더군요. 이왕 할 안보교육이라면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교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산업연수도 크게 달라졌다. 대기업을 방문해 설명을 듣는 방식을 버리고 중소기업 현장으로 신임사무관들을 보냈다. 작업복을 입고 일주일 동안 중소기업 직원들과 함께하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몸으로 느끼라는 주문이었다. 개중에는 사정이 열악한 곳도 적지 않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산업연수로 현장 느끼게

"말로만 공생발전, 동반성장, 중소기업 육성 외쳐서야 체감도 높은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중소기업을 몸소 체험해보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반응도 좋았어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기회라는 거죠."

윤 원장이 부임한 후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획기적인 교육과정과 관행을 허무는 교육운영, 시의성 높은 교육 등이 크게 강화됐다. 교육원 안에 올레길을 조성하는가 하면 심리학자문단과 예술 공연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감성'을 자극해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다.

그는 민간에서도 손꼽히는 변화·혁신 전문가였다. 경영컨설턴트로서 수많은 직장인과 CEO를 교육하며 축적한 아이디어와 지식, 추진력을 인정받아 교육원장으로 임명됐다. 공무원교육을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의 중심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변화혁신전문가인 윤 원장은 공무원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신임사무관을 대상으로 윤 원장이 특강을 하는 모습.

변화 '0순위'는 신임사무관 과정이었다. '공무원 사관학교'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장교를 길러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다. 현장 중심의 안보교육과 산업연수를 도입하고 선진국 위주의 해외연수 방식도 바꿨다. 신임사무관의 절반을 저개발국에 보내 봉사활동을 시켰다.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하지만 반응은 좋았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소감이 이어졌다.

"토기와 옹기의 차이는 비가 온 후에 알 수 있습니다. 토기는 훼손되지만 옹기는 비가 그친 후 오히려 빛이 나죠. 불가마에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교육은 마치 불가마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옹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십삼고초려' 정신으로 최고 강사진 구성

고위공무원 교육은 내실을 다졌다. 국정현안을 테마로 한 '국가전략세미나'를 개설했다. 부처가 다른 실·국장들을 모아놓고 FTA, 공생발전 등 현안에 대한 핵심 쟁점을 강의하고 토론을 벌였다. 리더들이 먼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현직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부처가 다른 실·국장들이 모이니 자연스럽게 부처 간 장벽도 허물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현안들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 장이 마련된 셈이죠. 만족도가 95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반응도 좋습니다."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6급 이하의 현장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본격화했다. 10개 부처에서 1백명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현장공직자 CS 워크숍'이 그것이다. 국민을 직접 접하는 현장공무원들의 '고객만족교육'이었다. 현장공무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장·차관을 초빙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인상은 현장공무원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큽니다. 민간기업들이 고객만족교육을 크게 강화하는 데 비해 공무원 사회는 이 교육이 미약해 정책소통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현장공무원이다'를 슬로건으로 삼았는데 실제로 현장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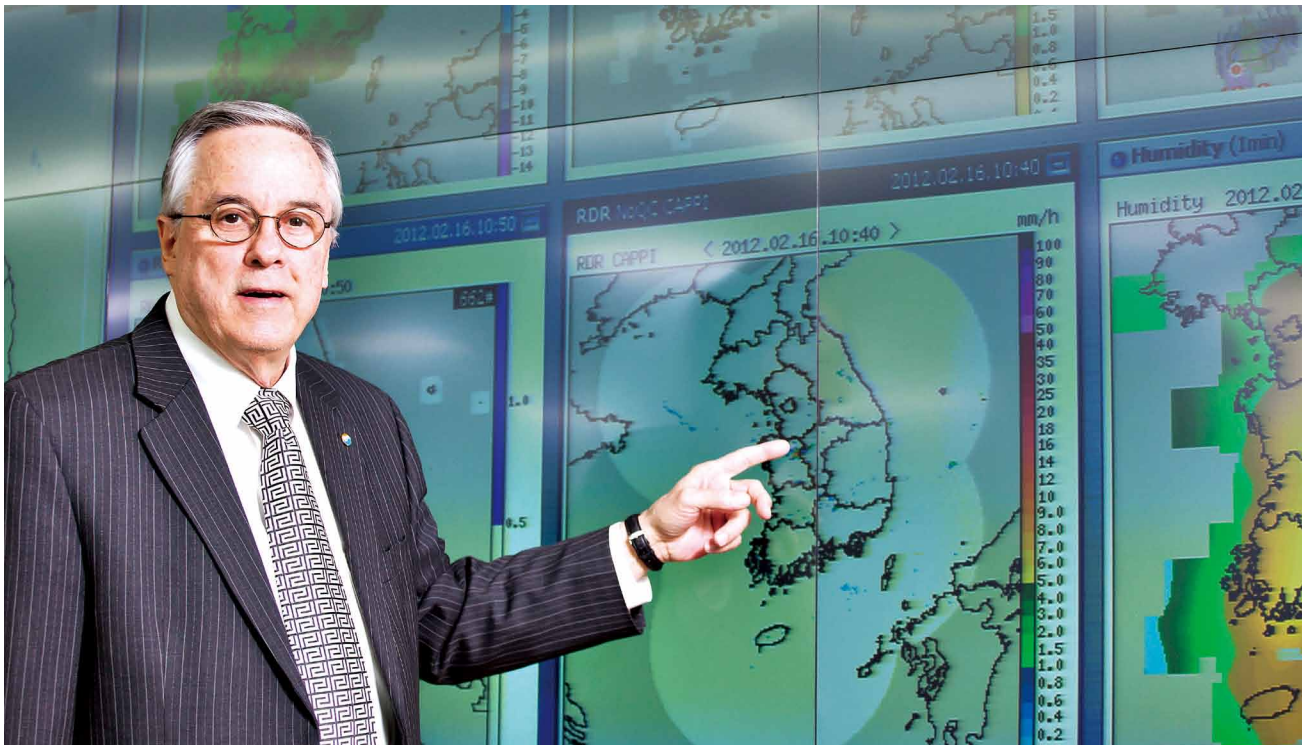
최근 교육원에 대한 만족도는 윤 원장이 오기 전에 비해 10퍼센트포인트가량 상승했다. 획기적인 교육과정 외에도 강사의 질을 높인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고의 교육을 위해 최고의 강사를 섭외하고 있다고 윤 원장은 강조한다. 이를 위해 삼고초려가 아닌 '십삼고초려'를 교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이라도 강사 섭외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대학총장 그만두고 맡은 직책에 보람 느껴"

공무원교육원장협의회도 구성했다. 각 부처별로 제각각 활동하던 교육원들의 연계를 강화해 공무원교육시스템을 한 차원 높이자는 구상이었다. 교재의 공동개발 및 활용, 상호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공정사회나 FTA와 관련한 동영상을 함께 제작해 공동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돌아보면 보람 있는 시간이 분명하지만 교육원장 자리를 제안받았을 당시엔 고민이 많았다고 윤 원장은 회고한다. 현직 대학총장으로서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이어서 결정하기가 더욱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의 장점과 공직사회의 장점을 '융복합'해 공무원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힐 수 있었다.

"교육원의 전략목표가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입니다. 부처의 이익을 넘어 국가적인 시각으로 더 크게 보고,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윤리적이고 공익적인 공무원을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반박자 빨라지면 기업이 살아나고 국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G

글·변형주 기자

크로포드 단장은 한국의 기상관측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국 대학교수직을 사직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의견이 높다.

첫 외국인 1급 공무원 켄 크로포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

'기상 강국'을 향한 시스템 개선에 공헌

켄 크로포드(69)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은 지난 2009년 8월 국내 첫 외국인 고위공무원(1급)으로 채용돼 세간을 놀라게 했다. 크로포드 단장은 대한민국을 세계적 기상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크로포드 단장의 성적표는 어떨까.

2008년 여름 기상청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6주 연속 주말예보가 틀리는 대형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비난전화가 기상청에 쇄도했고 언론은 연일 기상청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때가 기상청 개청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정부는 "기상청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하는 고민을 했다. 정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문제를 외국인 전문가에게 맡겨보자고 결론을 내리고 외국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영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켄 크로포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은 우리 정부가 전 세계를 뒤져 최적임자로 영입한 인물이다. 크로포드 단장은 미국 기상청에서 약 28년간 근무하고 오클라호마대학 교수로 18년을 근무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美기상청 근무… 대학교수로 이론·실무 겸비

인터뷰를 위해 지난 2월 16일 기상청을 찾았다. 켄 크로포드 단장과 인터뷰 약속이 있어 왔다고 하자 직원들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크로포드 단장이 신망을 얻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그는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 진지하면서도 유머감각이 있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강하다는 게 중평이다.

크로포드 단장은 서양인이지만 동양적인 정서에도 익숙해 한국인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가 2009년 9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국회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열중쉬어' 자세를 취한 것도 화제가 됐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크로포드 단장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크로포드 단장 영입 당시 기상청 국제협력팀장을 맡고 있던 남재철 부산지방기상청장은 "크로포드 단장님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근면 성실하다. 인정이 넘치는 인간적인 면을 지닌 서양인이면서도 동양적인 분"이라고 말했다.

크로포드 단장은 일하는 자세가 남다르다. 그는 지난 2010년 8월 19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인의 근면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처음이에요. 따라서 저도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위직이지만 계약직 공무원이다. 그의 계약기간은 2009년 8월 20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다. 2년 9개월 남짓한 기간인데 그는 미국 대학교수직을 사직하고 한국에 왔다.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지만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기상서비스·예보 선진화 로드맵 준비"

그는 일도 잘한다. 그는 기상서비스와 기상예보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기상청에 영입됐다. 처음 60일 동안은 한국 기상청이 세계 선진 기상기관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10가지 사안을 분석했고, 이를 기상선진화추진단과 함께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적 선진훈련과 선진 워크스테이션(예보 컴퓨터 시스템)의 부재 및 비효율적인 소통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2020년까지 내다보고 효율적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부임 후 최우선 순위를 둔 것은 기상청과 국토해양부, 공군이 각각 운영하던 기상레이더의 통합 운영이다. 추진단은 지난 2010년 4월 기상레이더센터를 신설했고, 공군 및 국토해양부와 '기상·강우레이더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가 제안한 국가기후자료센터는 올해 설립된다. 센터는 한국의 기상과 물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자료의 품질을 보증하는 일종의 기록보관소다. 그는 "선진국 가운데 기후 관련 기록보관소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한국의 국가기후자료센터는 미국의 국가기후자료센터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상예보의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3~7일 예보는 선진국 예보와 동등한 수준"이라며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급격히 발생하는 재해기상 예보(1일 예보)와 같은 초단기 예보"라고 말했다.

기상청 "영입 성공적" 평가… 계약연장 가능성

그는 세살 연하의 부인과 장성한 두 자녀와 떨어져 홀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아내가 같이 오고 싶어했는데 몸이 약해서 같이 못 왔습니다." 그를 받쳐주고 있는 것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몇 차례 참석했고 발언기회를 얻은 적도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텍사스의 작은 시골마을 출신이 일국의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했으니 큰 영광입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기상청은 그의 영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득균 기상청 대변인은 "기상청은 크로포드 단장이 외국인 최초의 한국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영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의 계약이 2012년 5월말로 종료되는데 정책 기획 면, 선진기술 접목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기상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직의 연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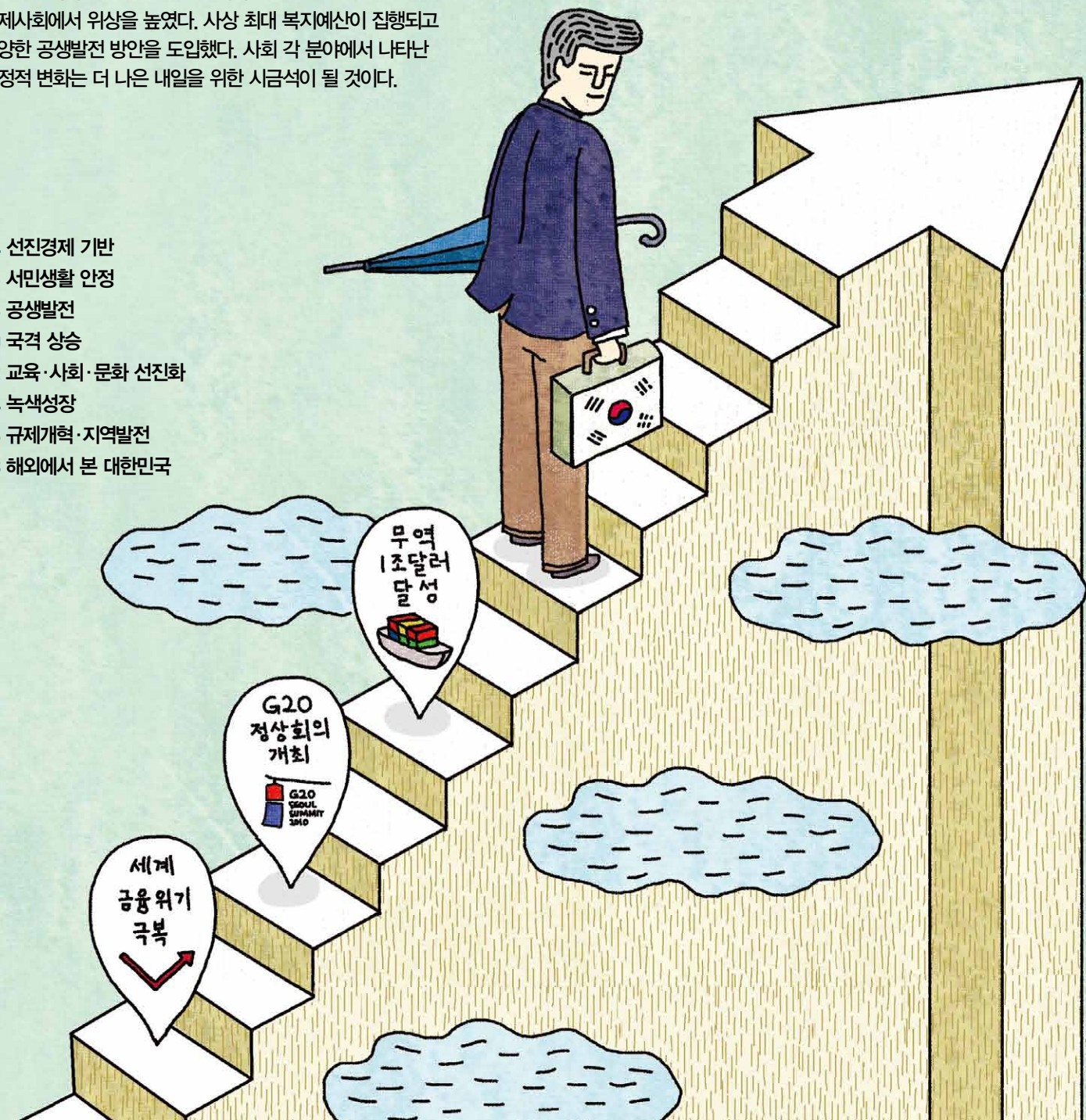
크로포드 단장에게 한국정부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다. 그는 즉각 "예스!"라고 대답했다. G

글·박영철 기자 / 사진·한준호 기자

밖으론 글로벌 코리아 안으론 공생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선진화'였다.
경제는 물론 행정과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선진화를 추진했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는 등
경제적인 성장을 이어갔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였다.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다양한 공생발전 방안을 도입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무역 1조달러 달성

G20 정상회의 개최

세계 금융위기 극복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을 높이고 디스플레이, 조선, 제철, 휴대전화 등 주력산업은 세계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에 있는 파이넥스 설비에서 흘러나오는 쇳물을 점검하는 모습.

무역 1조달러 시대… 세계 중심국 '우뚝'

세계 금융위기 속 시장점유율 높이고 수출 다변화에 성공

우리 경제의 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욱 성장했다.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8년 만의 최고치인 6.2퍼센트를 달성했다. 내실도 튼튼했다.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은 격랑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그 결과 국제신용등급도 상승했다. 역경 속에서 도리어 선진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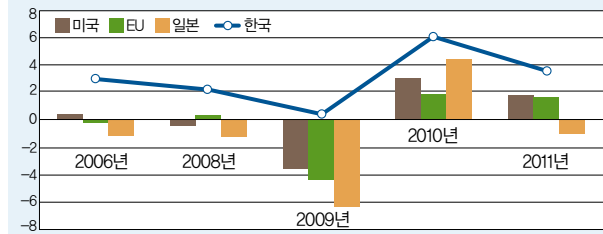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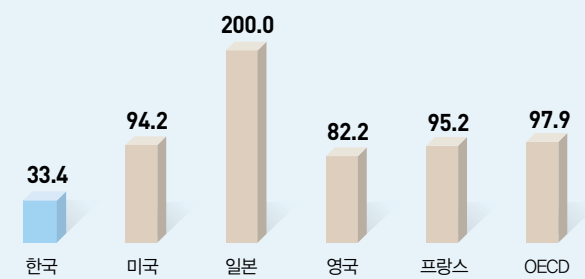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큰 경사를 맞았다.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것이다. 달성 속도도 평균 이상이었다. 건국 60여 년, 경제개발 50년 만의 쾌거였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당당하게 올라선 순간이었다.

더욱 뜻깊은 것은 무역 1조달러라는 금자탑을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달성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위기의 격랑 속에서 뒷걸음질을 칠 때 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위기 이후 1조달러 달성 국가는 우리가 처음이었다. 교역규모는 수출 7위로 10대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무역의 약진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꼽힌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6.2퍼센트로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국민소득은 3년 만에 2만달러대로 복귀했다. 국제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됐다. 무디스는 2010년 7월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피치는 2011년 11월에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국제신용등급 상향

경제위기 극복은 기업들의 도전정신과 함께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 자본의 유출입은 줄이고 외채구조의 건전성은 높였다.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화유동성도 늘렸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도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됐다. 2008년 금융위기에 맞서 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경제의

체력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은 약화됐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경제회복과 함께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개선됐다. 위기 이후 세수는 늘고 지출은 억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개선에 한층 박차를 가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시장에 대한 충격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시키고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는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고용이 급락하는 것을 막았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회복도 빨랐다.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고용능력을 높인 결과다.

일자리 창출효과 큰 서비스산업 선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밑그림은 이미 마련됐다. 5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이 나왔고 부문별 일자리창출 방안도 수립하는 등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해외 환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2007년 8천명이 채 되지 않던 해외 환자는 2011년 11만명 수준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6백45만명에서 9백79만명으로 크게 늘며 1천만명 시대를 맞았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66.9퍼센트에서 68.8퍼센트로 증가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정·세제지원 확대, 표준화·R&D·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노사문화 선진화에도 진척이 있었다. 법과 원칙, 노사 자율해결의 원칙을 견지해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새로 도입된 제도도 조기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G

글·변형주 기자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제 일본을 넘어 우리만의 모델 정립할 때"

"무역 1조달러는 우리 무역이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주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무역 1조달러를 계기로 한국 무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백여 개 국가 중 1조달러에 도달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9개국에 불과한 만큼 국제무역을 주도할 만한 규모를 갖췄다는 평가다.

무역 1조달러 달성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업과 근로자의 힘이 가장 크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관 주도의 모델로 성장했으니까요. 단기간에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모델에 관심이 많죠. 금융위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회복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을 바라보며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과 수출구조도 엇비슷하고요. 이제 일본을 넘어 우리만의 모델을 정립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중국의 추격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기업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3년이 아니라 20~30년을 내다보는 초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책과 접근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앞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뒤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성장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체질과 역량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해져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역할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만 0~5세 유아 보육료 전 계층 연차 확대

복지예산 4년간 25조원 증가…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지원

이명박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과 전월세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 덕분에 집값과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친서민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정책을 펴온 것은 통계에서도 입증된다. 현 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연평균 8.2퍼센트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예산 규모 및 비중도 증가 추세다. 그 결과 2012년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5퍼센트(92조6천억원)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4년간 25조원이 증가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중점 지원한 덕분이다.

서민금융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2008년 이후 총 45만8천1백54명에게 3조9천9백27억원을 공급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대표적 주택정책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금자리주택 43만7천호를 공급하고 5만8천호를 착공해 주택가격안정에 기여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집중 공급된 수도권은 2009년 이후 집값이 1퍼센트 내외로 안정되는 등 이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월세 안정화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자금 지원, 전세수요 분산 등 시장안정화 노력을 지속했다. 전세가격도 지난해 9월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현재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육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만 0~5세 유아 전 계층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2009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로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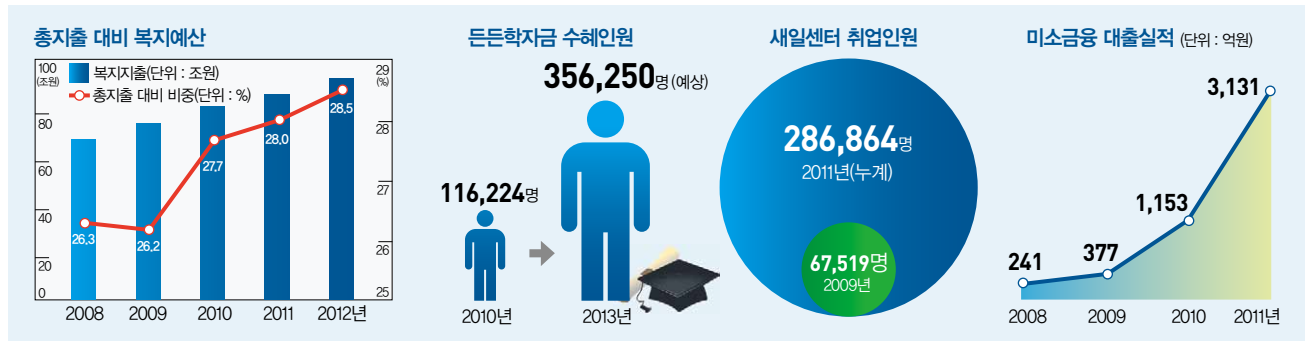
2011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올 3월부터는 만 0~2세 유아 및 만 5세 유아(5세 누리과정)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 유아로 확대한다. 보육료 예산(국비)은 2008년 8천억원에서 2012년 2조9천억원으로 3.6배 확충했다.

정부는 보육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의 한 어린이집.

미소금융 등 45만여 서민에 3조9천억 공급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 1학기에 도입한 든든학자금도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상환의무가 발생했으나 든든학자금은 재학중은 물론 일정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으므로 학업중단 및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가 가능하다.

노인복지도 강화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거동불편 노인의 건강기능을 개선했고 일상생활능력을 호전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추경예산 편성 등 신속한 재정 투입과 민간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2008년 11만7천명에서 2011년 20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민간기업 콜센터 상담원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를 확인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의 모델을 제시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복지를 강화했다. 2010년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또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했고,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줬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강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골목슈퍼 현대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해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했다.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정·운영해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72곳을 운영하던 것을 지난해 90곳으로 확대했다. 또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인턴제, 구인·구직 관리, 일·가정양립지원 등 원스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고, 2009년 12월 관계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008년 80곳에서 2011년 2백곳으로 늘렸다. G

글·박영철 기자

이의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복지예산 연평균 8.2퍼센트 증가 바람직한 현상 사회안전망 확대·약자 보호 위한 장치 더 필요"

2월 16일 이의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에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긍정적인 측면과 향후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등을 물어봤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2008년 67조6천억원에서 2012년 92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8.2퍼센트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 6.1퍼센트를 상회하는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양육수당 지급,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사회복지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 등 사회적 경제의 범위(시장경제논리가 미치지 않는 부분의 경제) 확대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복지정책이 지향·개선해야 할 것을 든다면?

이명박정부가 복지정책에 역점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낮은 편이다. 2011년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9퍼센트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책을 들자면?

첫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을 강화해 여성의 고용률 증가와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및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안정적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정책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확충과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의 확대를 위한 복지정책의 선회가 바람직하다.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중고령자, 모자가정,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규모와 틀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더불어 사는 생태계 균형으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위한 '열린 고용사회'와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힘써

지난 2008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양극화 심화를 경험하며 교육과 채용, 기업 간 거래 관행 등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공존·공생하는 생태계적 균형을 찾아가자는 공생발전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조선DB

대우조선해양 '중공업 사관학교' 1기생 대표들이 1월 5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중공업 사관학교' 입학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중공업 사관학교' 1기생 입학식이 열렸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졸 관리직 공채 1기생 1백4명이다.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중공업 전문가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일정 과정의 사내교육을 마친 뒤 대졸 신입사원과 인사·승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고졸 채용 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국 12개 지역 7백여 개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남녀 고교졸업 예정자 3천1백99명이 지원하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기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며, 1년간의 기숙생활을 포함해 총 7년 동안 대학에 준하는 기초 소양과 실무지식을 배운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기업들의 고졸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기업은행, 경남은행 등 금융권에서 시작된 고졸 채용 분위기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졸 채용 확산도 고용시장에 새 바람

고졸 채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제66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제시한 뒤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공생발전이란 경쟁적인 시장 만능주의를 극복하되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복지 지상주의와도 거리를 두자는 개념의 신조어. 자연생태계의 공생원리를 본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공존·공생하는 생태계적 균형을 찾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생발전의 등장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함께 심화돼온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집진이 2011년 '올해의 단어'로 '쥐어짜인 중산층(squeezed middle)'을 선정한 것도 미국의 '월가 시위' 역시 양극화 심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인 만큼 공생발전의 큰 축 역시 일자리에서의 공생발전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일자리에 있어 조금씩 '열린 고용사회'로 나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한 이후 특성화고 현장에서 취업희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2011년 10월 43퍼센트→2012년 1월 48.3퍼센트), 학교·기업 고용센터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1천6백10개 학교, 1천10개 기업이 참여해 2천4백6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생발전을 위해 '열린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우선배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에 힘써왔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 역시 교육희망사다리의 일부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2008년 7.2퍼센트 ▲2010년 3.7퍼센트 ▲2011년 2.6퍼센트 등으로 감소해왔으며, 도·농 간 학력격차(보통학력 이상)도 2008년의 13.3퍼센트포인트에서 2011년 4.1퍼센트포인트로 줄었다.

공정경쟁·투명성 높일 다양한 방안 모색

공생발전의 또 다른 중요 요소는 '공정한 경쟁'과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투명성'이다. 변호사법 개정(2011년 4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1년 10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2011년 10월)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했다. 공직채용에 있어서 공채제도가 확대되며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졌고 ▲중증장애인 5급지위 임용 ▲9급 공채에서의 기초수급자 채용 확대 등 장애인·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의 공직진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기업 간 거래 등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다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2010년 9월부터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운영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기업 간 자율 합의로 두부, 김 등 82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했다.

30대 그룹의 동반성장 지원 규모도 ▲2010년 8천9백억원 ▲2011년 1조5천4백억원 ▲2012년 1조7천2백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협약체결 대기업 수도 2007년의 11개에서 2011년에는 1백8개로 크게 늘었다. '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를 실천하는 공생발전은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뿌리내리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이철상 대우조선해양 전무

"고졸시대를 여는 '중공업 사관학교'가 될 겁니다"

"성적은 우수하지만 일반 대학 진학이 어렵거나 대학 진학 이외에 다른 경로를 찾는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경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이철상 전무는 '중공업 사관학교'가 "회사 차원에서는 자체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중공업 사관학교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무는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렸는데, 놀라운 것은 과학고, 외국어고, 예체능고와 같은 특목고 출신 학생 10여 명이 지원을 했고, 내신 1~2등급 수준의 학생들도 5백여 명이나 지원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중공업 사관학교만의 특징이라면?

조선업이란 신입사원이 입사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돼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입사하는 경우에도 상당기간 직무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업 사관학교'는 직무교육은 기본이고 인성을 키우기 위한 외국어·예체능 수업 등의 교육도 함께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공업 사관생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 공학, 경영학 등에 대해 집중 심화교육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한 가지 운동, 한 악기에는 능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내 고졸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대우조선해양은 약 3만명의 직원이 거제도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45퍼센트가 고졸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것입니다.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

여학생과 군 면제자, 군 입대자 모두 교육기간은 똑같이 7년입니다. 군대에 가는 학생은 군생활이 교육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군복무 중 학생관리를 위해 같은 기수가 동일한 시기에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며, 군 생활 동안에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회사 관련 소식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보내줄 예정입니다.

사관학교 출신과 대학졸업 신입사원의 대우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지?

사관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대학을 졸업한 또래 신입사원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게 됩니다. 연봉에 있어서도 대졸자와 같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할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 기준으로 입사 7년이 지나면(군대 2년 포함) 대졸자와 같은 급여 수준이 되며,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졸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테니 양자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문의 대우조선해양 ☎02-2129-0114

글로벌 외교로 세계 변방에서 중심으로

G20 정상회의 성공에 이은 평창올림픽 유치로 '코리아' 명성 높여

이명박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격 상승'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숱한 전화와 서신, 비공식 양자회담 등 특유의 '스킨십 외교'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를 G20 반열에 올려놓았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을 때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연일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G20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했고,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개발 의제가 최초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정상회의 직후 정부가 해외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경제상황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식하는 국가가 개최 전(42퍼센트)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53퍼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최 성과는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1년 칸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정상회의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됨에 따라 G20의 신뢰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로 세계 시선 모아

우리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평창 동계올림픽도 마치 사업권 수주하듯 치밀한 전략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해 7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은 '삼수' 끝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전통적인 동계스포츠 강국인 독일의 뮌헨, 프랑스 안시와의 유치경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동·하계 올림픽, FIFA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5대 메이저 국제대회를 모두 개최하게 돼 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금껏 5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등 5개국뿐이다.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져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량을 과시했다.

오는 3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12 핵안보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안보 분야의 논의를 주도하게 될 절호의 기회다. 한국은 의장국으로 핵안보 강화를 위한 50개 참가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핵안보에 대한 실천비전과 행동강령을 담은 '서울 코뮤니케'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에 열린 대구 세계육상선수권의 성공적 개최도 국가브랜드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 대회에는 2백2개국 6천9백14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관람객도 44만6천3백5명에 달했다.

UAE 원전 수출 등 '세일즈 외교'도 주목받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성과는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비즈니스 마인드 없이는 불가능했다. 한국은 2009년 12월 한국형 원전의 첫 해외 수주를 기록함으로써 세계 여섯번째 원전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UAE 원전 수주를 통해 1천4백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일괄 수출해 건설부문만 약 2백억달러를 수주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베트남 양국 간 원전협력을 공식화한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중동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원전 해외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터키 방문 기간 중 터키 정부로부터 원전 건설에 한국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터키 원전 수주 협상을 위해 이달 중 실무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UAE와 카타르도 한국 원전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동지역 원전 사업 진출과 관련, "터키가 한국과 하겠다고 하니 UAE와 카타르 등에서도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댈 테니 함께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UAE 원전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원전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정상급 세일즈 외교를 통해 해외 원전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G

글·오동룡 기자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북핵 해결에 도움될 것"

"지난 10년간 한국은 유엔사무총장 배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 등을 강화해나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안보'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첫걸음이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안보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피규제자 입장이 강했다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탈냉전 이후 핵심 국제안보정책의 하나인 '핵안보'에 대해 규범창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안보외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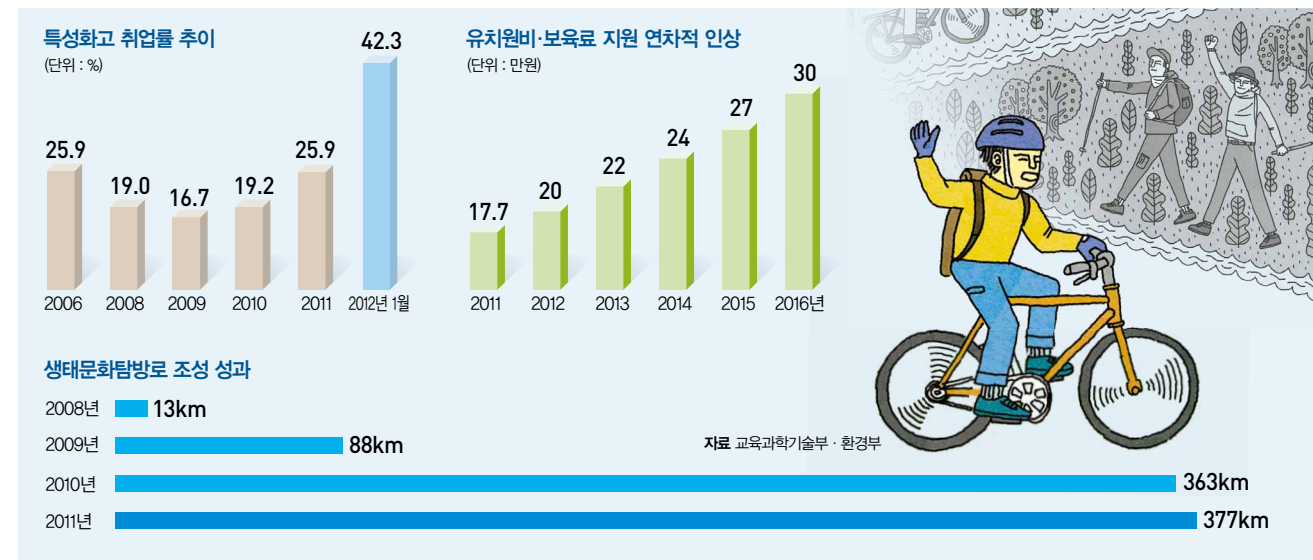
전 교수는 특히 북한 핵문제와 핵안보정상회의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면서 "핵안보정상회의는 큰 틀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이란이나 북한 핵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사회가 공동의 위협을 느끼는 핵 테러와 방사능 테러의 통제 부분을 논의하는 장이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 5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힐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국제안보 외교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안보 분야에서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대표국가라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 안착… 대학입시 질적 변화

자원봉사 포털 '나눔넷' 개설…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

정부는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고 사회 전반에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나눔·봉사 문화 확산과 한류 확장 등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당장 3월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유아의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이 실현된다. 1997년 법률로 명문화된 이래 15년 만이다. 5세 누리과정은 표준화된 만 5세 유아 국가 교육과정을 도입해 유아단계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유아교육·보육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치원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지난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에서 올해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해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육아부담을 느꼈던 학부모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둘째를 낳아도 되겠다"는 댓글도 오간다.

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33개교를 지정 육성하면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이는 이미 취업률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2월 개교한 이후 산업수요 맞춤교육을 통해 2013년 졸업예정자의 80.7퍼센트가 채용약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과거 10년간 감소하던 특성화고 취업률 반등에도 성공했다.

수능·논술 등 입시 위주 교육은 입학사정관제 안착 등 '대입 선진화'를 추진해 질적 발전을 이뤘다. 수능-EBS 70퍼센트 연계를 강화하고 수능 난이도를 영역별 만점자가 1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학생들의 수능 준비 부담과 수능관련 사교육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지역의 EBS 활용 증가로 교육격차도 해소했다.

내년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약정 80퍼센트 넘어

아울러 정부는 공교육 강화와 동시에 사교육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는 총 사교육비가 뚜렷하게 감소됐으나 학부모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해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는 나눔과 봉사 문화가 확산돼 문화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는 나눔과 봉사를 '공생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삼아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각종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부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기부금품 모집절차 간소화 등 기부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2011년 1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개편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원봉사실적 등 관련 정보를 열람·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소 나눔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방법과 정보가 부족했던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나눔 기관과 나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나눔넷'도 개설했다.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1004지역사회봉사단이 출범(2010년)하고 청년과 전문직 은퇴자가 함께 재능 봉사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사회봉사단(Korea Hands)을 도입(2011년)했다.

이와 함께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전국자원봉사자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나눔과 봉사 문화를 장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년 기준 자원봉사포털 가입인원 7백9만명, 전체 국민의 14퍼센트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헌혈 등 생명 나눔 실천자도 증가 추세다.

해외문화재 환수 · K팝 등 한류 확산 성과

자전거길과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자 4대강 및 도심생활형 위주의 자전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1천6백92킬로미터에 이르는 4대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조성했고 도심생활형 중심의 국가 자전거도로를 구축했다. 기존 자전거도로도 정비했다. 최근 들어서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감소와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도 거뒀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관광상품을 개발해 녹색관광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1석2조의 효과도 거뒀다.

이뿐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외규장각도서 귀환,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귀환 등 해외문화재 환수의 시금석을 마련했다. 대외적으로 K팝에서 시작된 한류 역시 화장품, 음식, 출판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진출 지역도 일본·동남아 중심에서 미주·유럽 등 세계 각지로 넓혀가고 있다. 국내 주요 콘서트 등 한류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증가를 유도한 결과 2011년에는 방한 관광객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한식 세계화를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한식 세계화 추진 5대 전략'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내에선 한식 세계화 실현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해외에선 한식에 대한 인지도 개선과 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박근희 기자

신지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

"공교육 강화로 기초학력 책임지도 기반 마련"

이명박정부는 '공교육 강화' '대입 선진화' '선진 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교육개혁을 펼쳐왔다. 신지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지원국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이런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행정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정부 4년 동안 공교육은 어떤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지?

이명박정부는 '인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인재육성을 위한 개별화 교육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다'는 기치를 내세웠지요. 즉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정책과 기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용주의, 자유주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 교육의 수월성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현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정책을 꼽는다면?

고교다양화 정책, 누리과정 도입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기초학력 책임 지도,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학교자율화 및 교육행정체제의 교육지원 강화 정책, 직업교육 체제의 정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선순환 정책,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공교육 강화'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지?

누리과정의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정보 공시제 등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 지도의 기반을 마련했고, 교과교실제, 고교다양화, 직업교육 체제의 정비 등을 통한 학교선택권 확대로 교육의 수월성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법 정비,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에 노력했고,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남은 1년 제언이나 바람이 있다면?

모든 정책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된 TOP-DOWN 방식으로 교육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 무리한 정책목표 설정과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지표 반영 등의 추진방식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는 정책목표를 수정·보완하고 좀 더 학교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풍력 성장궤도 올라 선진국 추격

선진국 수준 녹색기술도 실리콘계 태양전지 등 5개로 늘어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기조로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4년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녹색성장은 다양한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녹색기술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안착했다. 녹색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녹색성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로 1백년 이상 지속될 과제"라며 "40~50년이 지나면 화석연료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열릴 것이다.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녹색성장이 계속 추진될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퇴임 후에도 녹색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자신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정부의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이며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녹색성장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7퍼센트가 "녹색성장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녹색성장 정책이 이처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 대열 올라서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 덕분이다.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2008년 1조4천억원→2011년 2조8천억원) 중점 녹색기술을 선정해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27대 중점 녹색기술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선진국의 50.9퍼센트→2011년 77.7퍼센트).

그린카드,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 30만명 넘어

또한 선진국 수준 대비 80퍼센트 이상인 기술이 2009년 1개(개량형 경수로)에서 지난해에는 5개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실리콘계 태양전지, 개량형 경수로, 조명용 LED,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됐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적극 육성해 현재는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보급량은 연평균 6.65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은 2007년 5백60만9천TOE(석유환산톤)에서 2010년에는 6백80만4천TOE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누적 보급량이 세계 10위에 올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지원을 지난해 7천1백억원에서 올해 8천5백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녹색성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녹색생활에 대한 인센티브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녹색성장 정책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다양한 기술, 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진은 2009년 광주 첨단산업단지 LED밸리에 들어선 태양광에너지 시설.

지난해 7월 정부는 전 국민의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그린카드'를 출시했다. 그린카드는 전기·수도·가스 등을 절약하거나 환경마크·탄소라벨이 부착된 친환경제품들을 소비할 때마다 할인 또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다.

국민의 호응도는 높았다. 첫 달 3천3백4명을 시작으로 8월 5만3천3백31명, 9월에는 9만1천9명이 그린카드에 가입했다. 특히 10월에는 신청자 수가 무려 14만5천9백12명에 달해 출시 후 3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백44개 지자체로 확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2010년 2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과 정부합동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8년부터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1백44개 지자체로 전면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린스타트 등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도 강화했다. 2011년 6월 녹색생활 실천운동 민·관합동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전국 조직으로 확산했고 지역네트워크도 구축해 연중 녹색생활 실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가용 대신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2014년까지 도심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 출퇴근, 쇼핑 등이 용이해지도록 도심생활형 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까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G

글·손수원 기자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국민들이 쉽게 녹색생활 실천할 여건 만들겠다"

지난 4년간 녹색성장위원회가 추진해온 사업들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녹색성장을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녹색기술 R&D 정부 투자 확대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투자도 대폭 활성화하는 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에 있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녹색성장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하는 등 높아진 국민인식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체제 구축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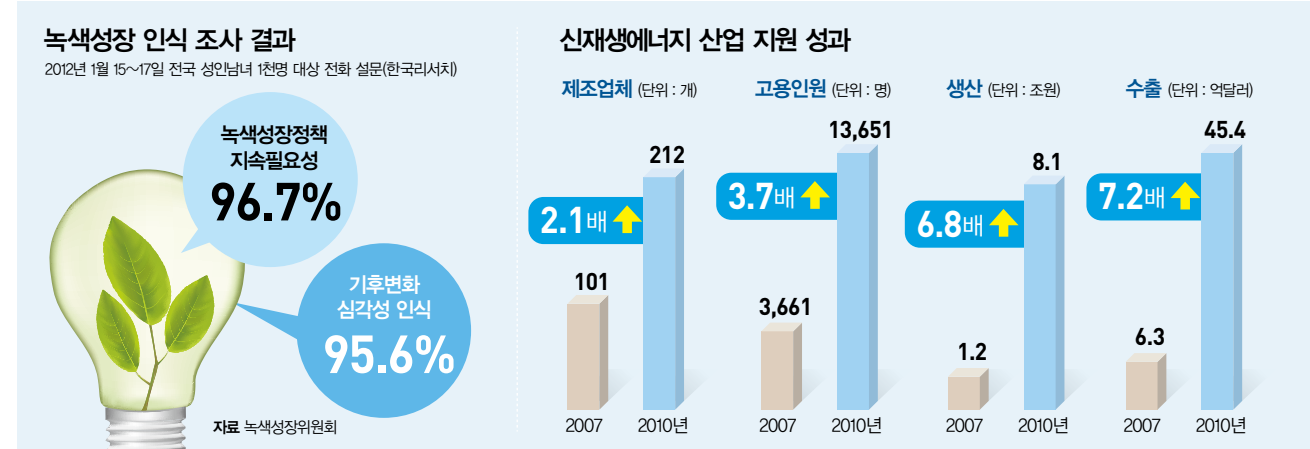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주창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는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핵심의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G20 정상회의, OECD,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녹색성장 의제 확산을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사업추진 등 녹색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성장 싱크탱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등을 통해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한 녹색과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는 변화하는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재해 대책을 전 부처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방재시설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저탄소형 생산 및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탄소성적표지제도 확대, 친환경건축물 인증, 탄소포인트 제도, 그린카드 발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의 경우 기존 카드 및 타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고 포인트 제공업체 및 제품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민·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 단행

공공기관 이전·세종시 건설 추진 등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

정부는 출범 후부터 불필요한 규제 또는 국가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각종 제도들을 대폭 개선, 개혁했다. 강력하게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졌다.

"불필요한 규제는 주저 없이 풀 것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 데 3, 4년씩 걸려서는 도저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 내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폭 고치겠습니다."

2008년 3월 '제35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다. 이후 정부는 '섬기는 정부, 창조적 실용정부'를 목표로 지난 정부에서 쉽게 해결하지 못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나갔다.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의 어젠더로 관리하고 정치와 이념보다 실용주의와 경제논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규제개혁 방식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추진했다.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한편 이후에는 핵심 과제,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갔다.

과감한 규제개혁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했다. 총 6회에 걸쳐 다각적인 창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한 결과 2010년부터 연간 6만개 이상의 법인이 신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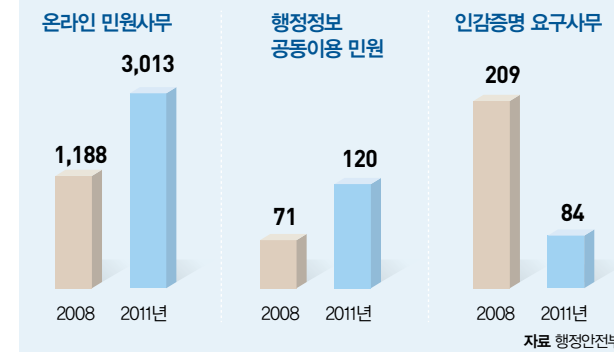
창업절차 간소화로 '제2의 벤처시대' 열어

벤처기업과 벤처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인 창조기업 육성 법률' 제정 등 1인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1인 창조기업수도 크게 증가했다. 창업 환경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제고돼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순위도 2008년보다 1백여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신·증설 등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수도권 5백제곱미터 이상 공장 신·증설의 원칙적 금지'에서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허용 규모의 한도를 확대해 수도권 투자에 적합한 업종의 적기 투자를 유도했다. 환경규제 방식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온라인 민원 선진화' 등 국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도 단행했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는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는 평가다. 실제 도로주행능력 위주의 테스트는 교통사고율도 크게 감소시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하면서 바이오 산업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농·식품분야에서도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농어업인·기업인·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4백51건을 발굴·개선했다.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방안 마련, 백두대간 보호지역 송전탑 작업장 허용, 미역·다시마 복합양식어장 시설구역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중심 운영 등 '공공기관 선진화'도 진행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공공기관 선진화'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정원감축, 통폐합,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등 하드웨어를 개혁하는 한편 노사관계 선진화, 보수체계 개편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세종시 개발, 새만금 종합개발 추진,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지방에서 15년간 지속 요청해온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에 힘입어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31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했으며, WB 기업환경평가 역시 2008년 23위에서 2011년 8위로 크게 상승했다. G

글·박근희 기자

창업절차 개선 효과

창업 소요 기간	
8단계	14일
2단계	5일

법인 설립 비용	
130만원	→ 6만원

자료 지식경제부

민원절차 개선 효과 (단위 : 종)

	2008	2011년
온라인 민원사무	1,188	3,013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71	120
인감증명 요구사무	209	84

자료 행정안전부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시장원리 작동과 미래 먹거리 생성에 초점"

규제개혁은 우리 사회의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한다.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명박정부 4년간 규제개혁을 통해 매년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4년의 규제개혁 성과는?

OECD가 주목할 만큼 한국의 규제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투자촉진형 규제혁파, 한시적 규제유예 완화조치, 규제일몰제의 과감한 도입, 미등록 규제의 등재와 정비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세계적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야의 규제개혁이 가장 큰 발전이 있었는지?

투자촉진과 국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발전이 있었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입지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완화, 출총제 폐지, 각종 리베이트 금지, 쌍벌제 폐지, 인허가 제도의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전환 등이 있었습니다. 국민생활불편 및 안전과 관련하여 학력철폐, 안전관련 법정수수료 통폐합, 안전한 먹거리 조달 등에서도 큰 진척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담긴 의의가 있다면?

경제사회가 시장원리에 맞게 작동되고 미래의 먹거리가 생성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규제의 작동과 개선과정에서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과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FTA에 맞춰 국내 각 제도를 국제적 모범기준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방향은?

앞으로 공정사회를 구축하고 치열한 국제경쟁환경 아래서도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일자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져 할 것입니다. 신성장동력 분야인 교육, 관광·레저, 방송통신 등 분야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개혁을 검토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신규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러스트 · 유재일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외신들 찬사… "역동적 리더십으로 G20에서 빈국과 부국의 중재자로"

지난 4년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성장에 주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에 한결같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G20 정상회의의 주도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려는 대한민국'에 찬사를 보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도미노처럼 곤두박질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2009년 플러스 경제성장을 이룬 데 이어 2010, 2011년에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외신들은 한결같이 '놀랍다'는 반응을 내비치며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캐나다 〈글로브 앤드 메일〉의 저널리스트 마크 맥키논은 2010년 6월 24일자 칼럼에서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글로벌 대침체 상황에서 이웃 나라들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부상하는 데 성공했다"며 "침체기간 초기에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1백10억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다른 수출의존 경제국들이 겪은 것과 같은 유형의 대량해고를 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2009년) 2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산업불모지가 반세기 만에 '무역 1조달러 클럽'

미국 〈타임〉은 "한국이 개방과 창조의 혁신을 통해 또 다른 '아시아의 기적'을 이뤘다"고 극찬했으며, 미국 〈뉴스위크〉도 "한국이 부국과 빈국을 중재하는 영향력 있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5일 세계에 단 8개국뿐인 '무역 1조달러 클럽'에 9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새롭게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에 대해서도 외신은 긍정적으로 다뤘다.

〈뉴스위크〉는 2010년 1월 25일자 기사를 통해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한국이 현재의 경제·환경 위기를 잘 관리했다는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로 한국의 운명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듯이 한국을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변모시키려는 더 큰 노력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선진 국가에서 G20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으로 개발의제가 최초로 다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이은 FTA 발효로 한국의 행보에 세계 관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개최한 경험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일보한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이 역동적 리더십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 금융안전망 논의 등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빈국과 부국의 중재자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고 논했다.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 이어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원조의 모범 국가로 발돋움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영웅적 경제발전 사례는 성공을 향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조전략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무일푼에서 거부로' 바뀐 성공담과 다름없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칠레, 한·EU 등 연이은 FTA 발효로 한국의 FTA 행보에 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었다. 특히 2011년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2007년)된 이후 외신이 FTA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한 해였다.

일본 〈닛케이〉는 "거대시장과의 FTA 체결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 이로써 일본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특히 EU의 전기·전자제품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역전될 뿐만 아니라 수치에서 큰 차가 벌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며 한·미FTA의 장단점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포츠와 문화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강원도 평창이 세 번의 도전 끝에 압도적 지지율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낸 것이다.

해외 언론에서 본 대한민국

저널	내용	날짜
美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한국, 글로벌 원조전략 국제회의 개최는 '무일푼에서 거부로' 성장한 성공담	2011년 11월 29일자
英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영웅적 경제발전 사례는 성공을 향한 본보기	2011년 11월 12일자
美 뉴욕타임스	K팝은 세계에 더욱 확대되는 아시아 팝의 중심	2011년 10월 25일자
홍콩 신보	한국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철저한 노력과 계획의 결과	2011년 7월 25일자
英 BBC방송	K팝과 TV드라마 아시아 이어 유럽, 미국에까지 열풍 일으켜	2011년 4월 27일
日 닛케이	거대시장과의 FTA 체결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	2011년 4월 22일자
美 타임	한국, 개방과 창조의 혁신 통해 아시아의 기적을 이뤄	2010년 11월 15일자
加 글로브 앤드 메일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교훈 통해 최근의 글로벌 대침체 상황에서 오히려 성장	2010년 6월 24일자
美 월스트리트저널	G20 정상회의 개최한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장 진일보	2010년 5월 6일자
美 뉴스위크	한국, 글로벌 소프트 파워로 자리매김	2010년 1월 25일자
美 뉴스위크	G20 정상회의 개최 한국,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	2010년 1월 25일자

〈홍콩 신보〉는 지난해 7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정 직후 내놓은 논평에서 "갈채와 환호를 받은 평창의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테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들였던 노력과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 자본, 민간단체와 스포츠선수가 결합된 운영 및 홍보 모델이 평가위원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팝뮤직·드라마로 한국을 연상" 한류 극찬

문화적으로는 K팝 열풍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K팝은 아시아 시장을 넘어 유럽, 남미, 중동을 뜨겁게 달구며 한류의 지평을 세계로 넓혔다. 외신들은 이러한 현상을 취재하고 분석하기에 바빴다.

영국의 BBC방송은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자동차나 반도체만큼이나 팝뮤직이나 TV드라마를 연상시킬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지난해 10월 25일자 기사를 통해 "지난 몇 년간 K팝은 글로벌 영향력을 점차 높여갔다. 많은 가수들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앨범을 출시했으며, 이는 더욱 확대되는 아시아 팝의 대체가능 여력에 대한 동의어라 할 수 있다"라며 K팝의 위상을 극찬했다. G

글·손수원 기자

한상호 감독은 〈점박이-한반도의 공룡 3D〉를 통해 흥행 PD뿐 아니라 흥행 감독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토종 애니 〈점박이-한반도의 공룡 3D〉 한상호 감독

"남부럽지 않은 작품이 흥행까지 돼 기뻐"

"누구도 해보지 않은 작업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1백퍼센트 우리 기술력으로 결국 해냈습니다." 한상호 EBS PD는 2008년 11월 TV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을 내놓으며 감격스러워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2년 1월엔 한층 업그레이드된 3D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보이면서 3년 전과 똑같은 말을 했다.

EBS TV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에 이어 3D 애니메이션 〈점박이-한반도의 공룡 3D〉(이하 〈점박이〉)를 선보인 한상호 감독이 전인미답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온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토종 애니메이션 〈점박이〉가 개봉 17일 만(2월 12일)에 누적관객수 80만3천4백21명을 기록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2백만 관객을 넘어서며 흥행한 〈마당을 나온 암탉〉에 이은 토종 애니메이션이 이룬 쾌거다.

앞서 지난 1월 26일 개봉한 〈점박이〉는 개봉 첫주 전국에서 36만6천5백2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 개봉 기록을 세웠다.

한 감독은 "〈마당을 나온 암탉〉 이전까지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흥행한 적이 없어 우려가 많았고 으레 안 될 거라 예측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아 정말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점박이〉는 국내 기술로 완성한 3D 공룡 애니메이션이라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완성도에서도 남부끄럽지 않다.

개봉 첫주 36만여 관객 동원 최고기록 세워

특히 제작비가 '고작' 8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애국심'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상품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완성도의 작품을 할리우드에서 만들었다면 제작비가 족히 수백억원으로 올라섰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또한 〈점박이〉는 이미 해외 33개국에 선판매됐다. 한 감독은 "어떤 연출자가 자기 작품에 1백퍼센트 만족하겠습니까. 〈점박이〉는 할리우드와 비교했을 때 인풋 대비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개봉 전까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모두가 그 뜻과 취지, 패기에는 공감했지만 계획보다 일정이 13개월이나 지연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고 한 감독의 부담은 한계를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심적,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몸무게는 8킬로그램이나 빠졌고, 밤새도록 코피를 쏟기도 했고, 응급실에 두 번 실려가기도 했어요. 고막이 터져서 수술을 받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회사(EBS)에 누가 될까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한 번도 약속한 시간 안에 제작을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산고 끝에 나온 〈점박이〉에는 현재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는 백악기 시대 한반도 남쪽 지역을 무대로 타르보사우루스 점박이와 티라노사우루스 애꾸눈의 숙명적 대결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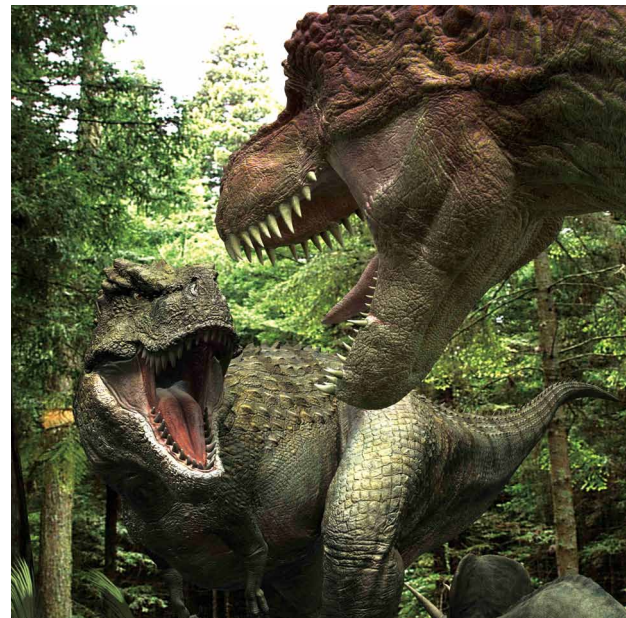
극중에는 모두 17종 80여 마리의 공룡이 다채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영화의 타깃층인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함께 관람하기에는 제격이다.

"제작기간 동안 응급실 두 번, 수술도 했어요"

한 감독은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프로젝트가 13개월 지연되면서 제발 작업이 끝나 극장에 걸리는 걸 보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젠 개봉하니까 흥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다"며 웃었다.

〈점박이〉는 현직 EBS PD인 한 감독이 2008년 11월 선보였던 EBS TV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에서 출발한다. 1995년 EBS에 입사해 '문자' '마이크로의 세계' 등으로 스타 다큐멘터리 PD가 된 그는 의미가 있으면서 재미도 있는, 또한 세계적으로 통할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공룡을 선택해 1년의 작업 끝에 〈한반도의 공룡〉을 내놓았다.

공룡의 일생을 CG를 입혀 표현한 90분짜리 다큐멘터리는 큰 호평을 받았고, 한 감독은 여세를 몰아 극장용 공룡 이야기에 도전한 것이다. "다큐를 만들 때도 반대가 엄청났어요. 예산 문제, 작업 기간, 기술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죠. 실제로 작업 도중 회의를 갖고 그만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1년의 작업 끝에 우려를 딛고 해냈습니다."

영화는 공룡의 입체적인 표현 못지않게 배경에도 공을 많이 들였다. 다큐멘터리 때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 원시자연을 훑는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배경 화면을 담아오고 그것을 재가공하는 작업을 거쳐 생생한 배경 화면을 만들어냈다.

〈점박이-한반도의 공룡 3D〉는 국내 기술로 완성한 3D 공룡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 감독은 "특히 항공촬영에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룡이라는 아이템과 국내 CG 기술력은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CG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한국 영화가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넓은 글로벌 시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공룡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배우에게는 한계가 많지만 공룡에게는 언어나 문화의 장벽이 없잖아요. 공룡시대는 우리에게 화석 몇 개로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런 단서에 상상력을 첨가해 그 시대를 재현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은 글로벌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국내 CG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 경쟁력이 있습니다."

〈점박이〉에 투자 겸 제작으로 참여한 EBS는 현재 이 영화를 엄청난 방송광고 물량으로 지원사격하고 있다. 한 감독은 "EBS PD로서 이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 의미 있었다. 방송과 영화의 만남 속에서 각각의 시스템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점박이〉가 성공해서 〈한반도의 공룡〉이 시리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나아가 〈아바타〉 같은 작품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G

글 · 윤고은 (연합뉴스 문화부)

김경곤 강남세무서 조사팀장

부부가 함께 음악봉사… "금슬도 좋아져요"

8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소외된 이웃에게 4백여 회 음악봉사를 해온 민·관합동 봉사단체가 있다. 김경곤 서울 강남세무서 조사팀장이 단장으로 있는 '국세청 사랑나눔봉사단 & 폰콰이어'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김 단장을 만나 음악봉사에 얽힌 사연과 애환을 들어봤다.

'국세청 사랑나눔봉사단 & 폰콰이어' 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곤 강남세무서 조사팀장은 "퇴직 후에도 음악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25분 서울 송파세무서. 퇴근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불 켜진 사무실이 많았다. 이 건물 옆쪽 반지하실에서 "뿌~!" 하는 색소폰 소리가 일제히 울려퍼졌다. '국세청 사랑나눔봉사단 & 폰콰이어' 소속 중급반 단원들은 이렇게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여기서 색소폰을 연습한다. 같은 시간대에 화요일은 초급반, 목요일은 상급반 단원들이 각각 연습한다.

다소 긴 이름의 이 단체는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국세청 사랑나눔봉사단'과 일반인들로 구성된 '폰콰이어'를 합친 색소폰 봉사단체다. 전체 인원은 70여 명이며 국세청 직원은 20~30퍼센트가량이다. 장운길 강동세무서장도 회원이다. 이 단체는 지난 2004년 10월에 현 단장인 김경곤(50) 강남세무서 조사팀장이 음악봉사를 목적으로 만들었고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하나둘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 단체는 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한 단체 중 하나다. 지금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4백여 회의 자선공연을 펼쳤다. 공연 장소와 대상도 장애인학교, 장애인 재활원, 보육원, 요양원, 노인대학, 교도소, 학교 축제, 다문화가정 어린이, 경로잔치, 외국인근로자, 마을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다채롭다.

국세청 직원·일반인들 70여 명이 단원

공연은 색소폰이 주가 되지만 다채롭게 진행된다. 2시간 공연을 기준으로 하면 색소폰 10여 곡 연주와 국악을 전공한 단원 최해리가(50)씨의 가야금병창·판소리·부채춤 등 국악공연, 마술, 벨리댄스, 통기타 연주, 일반 가수 찬조출연 등이 펼쳐진다.

김경곤 단장은 지난해 초에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다. 2010년 한 해에만 무려 90회의 음악봉사활동을 펼친 후유증이다. 일과시간 후나 주말 등을 이용해서 매주 2회 공연을 한 셈이다. 의사는 "과로해서 진이 빠진 것이니 무조건 3개월간 쉬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공연을 계속했고 지난해에도 64회나 공연을 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은 이유다.

김 단장은 색소폰 연습과 몸만들기에 열심이다. 지난해 많이 아팠던 탓에 올 들어서는 공연을 별로 못 했기 때문이다. 설 다음날인 지난 1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의 노인요양원인 자광원에서 공연한 이후 공연을 못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3월부터 자선공연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단원들과 함께 맹연습 중이다. "봉사활동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우가 공연을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런 분들을 생각하니 좀이 쑤시더라고요. 이제 몸도 좋아졌으니 다시 힘차게 공연을 해야죠."

지난 2월 14일 송파세무서 내 연습실에서 연습 중인 '국세청 사랑나눔봉사단 & 폰콰이어' 단원들.

한 달여 만에 공연을 재개한다는 설렘 탓인지 색소폰을 부는 단원들의 표정에 상기된 기색이 역력했다.

단원인 정대성(60) 세무사는 "색소폰 봉사활동을 하니 좋은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35년간 공직에 있다가 지난해 말에 송파세무서 법인세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8년간 4백여 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공연

정 세무사는 2010년 2월 송파세무서로 발령받은 후에 이 단체에 가입했다. 지난해 초에는 부인 문정희(57)씨도 가입해 부부가 함께 색소폰을 배우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제 퇴임식 때 집사람과 함께 색소폰을 불었습니다. 부부가 취미가 같다 보니 얘기할 시간이 많아 금슬도 좋아졌습니다. 색소폰을 불면 복식호흡을 하게 돼 건강도 좋아집니다."

김경곤 단장도 부부 단원이다. 부인 한명숙(47)씨는 지난해 9월부터 남편이 단장으로 있는 이 단체에서 색소폰을 배우면서 음악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음악봉사에만 열중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못마땅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색소폰 없이는 못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나중에는 저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가 음악봉사활동에 눈뜬 것은 집안에 우환이 많아 힘들 때 최일도 목사의 <마음열기>라는 책을 읽고 감동받은 게 계기가 됐다. 2004년 6월부터 '밥퍼' 봉사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색소폰이 가슴에 와닿아 그해 8월부터 종로의 한 교습학원에서 색소폰을 배웠다.

현재의 연습실은 김 단장이 지난 2008년 초 강남세무서로 발령받은 후 마련했다. 당시 송파세무서장이던 고 이영주씨가 이 단체의 공적 기능을 높이 평가해 기사대기실로 쓰던 곳을 현재 연습실로 쓸 수 있게 허용했다.

그는 사재를 털어 이 공간을 음악연습실로 바꾸었다. 공무원 월급으로 이런 돈과 악기구입비, 한 번에 1백만원 이상 들어가는 무료 공연경비 등을 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사명감을 갖고 버텨나갔다.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한 회원들이 회비를 거두자고 제안해서 4년 전부터는 소정의 회비를 거둬 공연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 길이 가야 할 길… 퇴직 후에도 계속"

연습에 여념이 없는 '국세청 사랑나눔봉사단 & 폰콰이어' 단원들에게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다. 대답은 뜻밖이었다. 2008년 3월에 가입한 단원인 이병덕(46) 서린실업 대표이사는 "우리 단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음악봉사를 해온 그는 자원봉사의 4대 요건으로 자발성, 공익성, 무대가성, 지속성을 들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지속성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음악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길이 평생 제가 갈 길입니다." G

글·박영철 기자 / 사진·이경호 기자

올 프로농구 정규리그 '조기 우승' 원주 동부 강동희 감독

허재 형 봤죠? 내가 먼저 해냈어요

프로농구 원주 동부의 강동희(46) 감독이 사령탑 데뷔 3년 만에 '명장'의 반열에 올라섰다. 강 감독은 팀을 2011~2012시즌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 전체 54경기 중 47경기 만에 1위를 확정지어 역대 최단경기 우승(종전 48경기)기록을 세웠다. 강 감독은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정규리그에서 우승한 최초의 인물이 되는 영예도 안았다.

사령탑 데뷔 3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일군 강동희 감독은 최단경기 1백승 등 지도자로도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강동희 감독은 프로 원년인 1997년 기아(현 모비스) 선수로, 2007~2008시즌 동부 코치로, 그리고 이번에 동부 사령탑으로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

이달 초엔 역대 사령탑 중 최단경기 1백승(8백42일)을 달성했다. 부산 KT 전창진 감독이 TG삼보(현 동부) 시절 1천91일 만에 이뤘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앙대를 거쳐 기아 엔터프라이즈에서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활약하며 '코트의 마법사'로 불렸던 강 감독은 이제 지도자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강동희 감독은 중앙대 시절(1986년 입학)부터 지금까지 허재 현 KCC 감독과 가장 절친한 사이다. 허재 감독은 '농구 대통령'으로 통했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며 KCC 사령탑으로 챔피언전 우승 두 번, 준우승 한 번을 일궜다. 허 감독은 지난 시즌에 강 감독의 동부를 챔피언전에서 4승 2패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KCC를 7시즌째 맡으면서 정규리그 2백승도 돌파했다. 이런 허 감독도 아직 정규리그 우승은 맛보지 못했다.

허재도 못한 선수·코치·감독 우승

강 감독은 이번 정규리그 우승 후 "허재 형도 못해본 걸 제가 벌써 해봤으니 형이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도고를 다닐 때부터 용산고의 허재를 본보기로 삼았다. 득점력을 앞세운 전천후 플레이를 하고 싶었다. 팬들은 '선수 강동희'를 예전 NBA(미 프로농구) 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 같은 명 포인트가드로 기억한다.

중앙대 3학년 시절의 강동희는 평균 27득점을 올려 슈팅가드에 가까웠다. 당시 허재가 졸업하고 실업팀(기아자동차)으로 갔던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주 득점원 역할을 했다.

강 감독은 중앙대 선배인 한기범, 김유택(현 중앙대 감독), 허재가 뛰던 실업팀 기아 유니폼을 입은 후에도 한동안 득점력을 높이는 훈련을 많이 했다. 슛을 던지기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자유투 라인에서 훅 슛을 하거나 백보드 상단을 맞춰 림 안으로 공이 들어가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경륜이 쌓이면서 어시스트에 매력을 느껴 다양한 패스를 갈고 닦았다. 비하인드(behind) 백패스, 노룩(no look) 패스처럼 상대 수비의 눈을 속이는 묘기는 기본이었다. 수비가 가장 막기 어려운 타이밍과 위치를 찾아 동료에게 공을 연결하는 기량을 발전시켜 나갔다. 수비 선수의 귀 옆쪽을 지나가는 빠른 패스는 어지간한 가드는 흉내 내기도 어려운 고난도 테크닉이었다.

선수 경력에 있어선 자부심이 남다른 강 감독도 허재 감독에 대해선 지금까지 "허재 형이 농구를 더 잘했다"고 몸을 낮춘다. 강 감독은 자신의 지도자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전창진 KT 감독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동부는 14일 부산에서 KT를 꺾고 정규리그 우승을 결정지었다. 강 감독은 "전 감독님은 내가 감독으로서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라면서 "전 감독님 앞에선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주 동부 선수들이 2월 14일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은 뒤 강동희 감독을 헹가래 치고 있다.

사령탑 데뷔 3년 만에 '2인자' 딱지 떼

강 감독은 기아를 거쳐 LG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했다. 2004년 LG에서 코치를 시작한 그는 이듬해 TG(현 동부) 감독이던 전 감독의 부름을 받고 팀을 옮겼다. 2007~2008시즌엔 전 감독과 호흡을 맞춰 팀의 통합우승에 힘을 보탰다. 2009년 4월 전 감독이 KT로 떠나면서 지휘봉을 물려받았다. 강 감독은 "처음엔 겁이 났다. 전 감독님 같은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리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 감독을 따라 KT로 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당시 동부 구단 역시 검증되지 않은 코치에게 팀을 맡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성인완 동부 단장이 강 감독의 사람됨을 보고 구단주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허락을 받아냈다고 한다.

'초보 감독' 강동희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데뷔 무대였던 2009~2010시즌 정규리그는 5위. 6강 플레이오프에서 LG를 물리치고 4강에 올랐으나 모비스에 졌다. 당시 모비스는 챔피언전까지 진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강호였다.

동부는 지난 시즌 한 단계 발전했다. 정규리그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LG와 KT를 연거푸 따돌렸다. 특히 4강 플레이오프에선 정규리그 우승팀이었던 KT를 눌렀다. 챔피언전 상대는 허재 감독의 KCC였다. 초반 2승 1패로 앞서던 동부는 하승진이 버틴 KCC의 높이에 밀리면서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줬다. 그러자 '현역 시절부터 2인자였던 강동희가 또 허재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 감독의 생각은 달랐다. 플레이오프와 챔피언전을 치르면서 선수들이 단합하며 위기를 헤쳐나가는 힘을 키웠다고 믿었다. 2011~2012시즌을 앞두곤 "지난 시즌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의 희망대로였다. 동부는 이번 시즌 개막 8연승을 달렸고, 단 한 번도 연패에 빠지지 않으면서 무적 행진을 했다.

'역대 최강의 팀' 조련의 꿈은 계속

강 감독은 "내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단점을 극복하고 꾸준히 나은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김주성, 윤호영, 로드 벤슨, 박지현 등 주전 선수들의 출전시간이 길어 4, 5라운드쯤 체력적인 문제에 부딪힐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잘 풀렸다는 점도 호재였다.

강 감독이 자신에게 주는 점수는 얼마나 될까. 그는 "전술적인 면이나 선수단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면서 "세번째 시즌만에 정규리그 우승의 꿈을 이뤘고, 여러 기록을 세웠으니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 최강의 팀'을 만들어가는 강동희 감독의 도전은 계속된다. G

글·성진혁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큰스님 가신 길 좇아서…

성철 큰스님 올해 탄신 1백주년 · 내년 입적 20주기 맞아 수행처 24곳 순례 행사

올해는 한국 현대불교의 큰 스승 성철(性徹 · 1912~1993) 스님 탄신 1백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은 스님의 입적(入寂) 20주기이기도 하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스님)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지금, 여기'에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는 성철 스님의 행적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했다.

한국 현대불교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성철 스님은 올해로 탄신 1백주년이 된다. 스님의 행적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수행도량 순례, 법문 강좌, 학술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오는 3월 31일 스님의 생가를 복원해 세워진 산청 겁외사를 시작으로 스님이 평생 수행하셨던 인연처 24곳을 매달 순례하는 '영원한 자유인 성철 큰스님 수행도량 순례'를 시작한다. 장마철과 혹한기를 빼고 2014년 8월까지 스님의 수행처를 연대기 순으로 좇으며 진행하는 대장정이다.

스님이 머리를 깎기 전 참선을 시작해 40여 일 만에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경지에 들었던 산청 대원사(4월), 스님의 출가 본사인 합천 해인사(5월)가 출발점. 대구 동화사(9월)는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 '(…) 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려 서니/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라는 오도송을 읊었던 곳이다.

문경 대승사 윤필암(2013년 6월)은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또 한 분의 큰 스승이기도 한 청담 스님의 딸 묘엄 스님을 성철 스님이 직접 거둬 출가시켰던 인연처다.

3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백일법문 강좌'

성철 스님은 청담 스님에 대해 "청담과 나 사이에는 물을 부어도 한 방울 안 샐 만큼 딱 붙은 사이"라고 했고, 청담 스님은 성철 스님에 대해 "성철은 팔만대장경을 다 줘도 안 바꾼다"고 했을 만큼 두 어른은 둘도 없는 평생 도반이었다.

또 청정승가 중심의 현재 한국불교 문화의 기틀을 놓은 '봉암사 결사'의 현장 문경 봉암사(2013년 7월)도 찾아간다. 현재 조계종 종립선원이 있는 봉암사는 부처님오신 날 외에는 산문을 닫아 걸고 수좌 스님들만 거처하며 용맹정진하는 곳이다.

순례는 스님이 10년간 '장좌불와(長座不臥)', '동구불출(洞口不出)'하며 용맹정진했던 대구 파계사 성전암(2014년 4월) 등을 거쳐, 스님이 1966년 이후 1993년 열반에 들 때까지 머물렀던 합천 해인사 백련암(8월)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다.

스님이 멀리 고향에서 찾아온 모친마저 보지 않겠다고 하다 다른 스님들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금강산 구경을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야 어머니를 모시고 금강산을 둘러봤다는 일화로 유명한 '금강산 마하연'도 순례 일정에 들어 있다. 다만 남북관계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내달 5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백일법문 강좌'도 열린다. 총 12강. 성철 스님이 1967년 해인총림 초대 방장에 취임한 뒤 동안거를 맞아 총림대중들에게 매일 설법했던 백일법문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다. 원택 스님, 동국대 김성철 교수, 불광연구원 서재영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 불교의 본질과 중도사상, 중관, 유식, 천태, 화엄, 선종사상 등 백일법문 전체를 강의한다.

성철 큰스님 수행도량 순례 일정

회차	일자	사찰	회차	일자	사찰
1	2012년 3월 31일	산청 겁외사(생가)	13	6월 13~15일	문경 대승사
2	4월 26~28일	산청 대원사	14	7월 4~6일	문경 봉암사
3	5월 24~26일	합천 해인사	15	8월 29~31일	부산 기장 묘관음사
4	6월 21~23일	부산 범어사	16	9월 26~28일	고성 문수암
5	7월 5~7일	양산 통도사 백련암	17	5월 22~24일	부산 해월정사
6	8월 30일~9월 1일	영천 은해사 운부암	18	10월 10~12일	통영 안정사
7	9월 20~22일	대구 동화사	19	2014년 3월 27~29일	남해 용문사 백련암
8	10월 11~13일	순천 송광사	20	4월 24~26일	대구 파계사 성전암
9	11월 1~3일	예산 수덕사	21	5월 22~24일	부산 해월정사
10	2013년 3월 28~30일	서산 간월암	22	6월 12~14일	서울 도선사
11	4월 25~27일	보은 법주사 복천암	23	7월 3~5일	문경 김용사
12	5월 23~25일	선산 도리사	24	8월 28~30일	합천 해인사 백련암
			*	미정	금강산 마하연

성철 스님 탄신일인 오는 3월 11일에는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탄신 1백주년 다례재가 치러진다. 이에 앞서 9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성철 스님의 유품과 유필, 사진, 동영상 콘텐츠 등을 선보이는 성철 스님 생애 특별전 <자기를 바로봅시다>도 열린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퇴옹 성철의 1백년과 한국불교의 1백년' 학술 포럼은 올해 '퇴옹 성철과 한국불교'를 소주제로 네차례 열린다. 장소는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

'3천배 요구'는 권력 · 富와 거리 두기

또 스님의 생애를 담은 <성철 큰스님 행장>, 말씀에 사진을 곁들인 <본래 눈을 뜨고 보면> 등 서적도 출간된다. 스님의 일화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동화도 가을쯤 선보인다.

성철 스님은 생전에 "누구도 법당에서 정성을 다해 3천배(拜)를 마치지 않고서는 날 만날 생각을 마라."고 강조해 말씀하셨다. 성철 스님의 상좌로 입적 때까지 20년간 시봉했던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3천배 요구'는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한 철벽과 같았다. 권력(權力)·금력(金力)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으로 모든 출가자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철 리더십'이다.

성철 스님의 '3천배 요구' 때문에 스님의 명성을 좇아 왔던 숱한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모두 발길을 돌렸다.

1978년 구마고속도로 개통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경남 합천의 가야산 해인사를 방문했지만 방장이던 성철 스님은 만나지 못했다. 원택 스님은 "서슬퍼런 유신시절 박 대통령의 만남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비범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선방 수좌들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철 스님의 단호한 모습에서 수행자로서 자부심을 얻었다.

"상좌들 보직 맡기지 말라" 주변 관리

1980년대 초반에는 당시 사채업으로 큰 돈을 모았던 장영자씨 부부가 다른 스님들과 함께 스님을 찾아온 적도 있었다.

당시 주변에선 "장씨 부부를 한 번만 만나주면 대한민국 사찰 불사(佛事)가 전부 다 해결된다"며 성철 스님을 졸랐다고 한다. 하지만 스님은 "그런 불사라면 내 안 할란다"라며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성철 스님은 또 상좌들이 자신의 그늘에서 권력과 이권을 누릴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모범도 보였다. 세속의 언어로 말하면 일종의 '친인척 관리'인 셈이다. 1967년 처음 해인사 방장으로 추대된 뒤 주지가 바뀔 때면 늘 직접 불러다 "내 상좌들에게는 절대 본·말사 주지나 삼직(총무·재무·교무 등 주요 보직)을 시키지 말라"고 '명령'했다.

해인사처럼 큰 사찰에서 혹시라도 방장 스님의 상좌라는 이유로 '실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원택 스님은 "상좌들 중에는 볼멘소리를 하는 이도 있었지만, 그 덕에 지금까지 상좌들이 큰 다툼 없이 원만하고 평안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도 했다. G

글 · 이태훈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문의 불교인재원 www.injaewon.org ☎02-1661-1108

"긴급차량에 내 가족이 탔다는 배려를"

'통행양보의무법' 시행 세 달째… 소방차 5분·구급차 4분 내 도착이 목표

집에 불이 났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119로 신고한 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지만,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길게만 느껴진다. 괴롭기는 구조대도 마찬가지다. 먼저 사고현장까지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부터 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긴급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1 2004년 2월 25일 자정 무렵 경기도 분당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현장까지 폭 8미터의 진입로가 있었으나 야간이라 2중, 3중 주차로 꽉 막혀 있었다. 진입로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화재진압이 늦어졌고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 2001년 3월 4일 새벽 4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관 9명이 옥내로 진입했으나 곧 건물이 무너지면서 소방관 6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후 조사과정에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현장까지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사이 거세진 불길에 노후된 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결론났다.

전문가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5분 내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5분이 넘어가면 불길의 확산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들의 건물진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구급차도 마찬가지다. 특히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응급환자는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중요하다. 사고발생 후 4~6분을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부르는데, 응급환자 대부분은 이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소생률이 높아진다.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응급처치를 받아도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소생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우리나라의 화재발생은 2010년의 경우 4만1천8백63건으로, 3백4명이 죽고 1천5백88명이 부상했으며 2천6백6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구조이송은 1백42만8천2백75건으로 1백48만1천3백79명이 이송됐다.

동아일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국 소방서는 2010년 12월 기준 1백89곳, 화재빈발 지역이나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된 소방 파출소는 9백33곳으로 전국 주요지역에서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높지 않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소방차 출동 후 5분 내 현장 도착률은 전국 기준으로 63퍼센트에 조금 못 미친다. 2010년 구급차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18초였다. 골든타임인 4분 내 도착률은 32.8퍼센트에 그쳤다.

카메라 설치… 통행방해 땐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방대의 도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으나, 소방서에서 화재현장까지의 교통상황도 골칫거리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다. 최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퍼센트가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내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해도 꼬리를 문 일반차량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뒤에 긴급차량이 보여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꼼짝 않는 운전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긴급 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고의 방해는 없지만 자발적 양보 아직 드물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긴급출동한 차량에 길을 양보한 운전자를 찾아 표창하는 '당근' 방식이었다면, 시행 후에는 양보해 주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찍'을 든 셈이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 및 구급차량 3백9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출동과정에서 도로상황을 녹화해 길을 양보해 주지 않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의 소방관들은 개정안 시행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한 소방서 관계자는 "지금도 출동하면 잘 안 비켜준다. 외국은 출동하면 잘 비켜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차량을 먼저 보내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양보해 달라고 방송을 해야 겨우 비켜준다. 물론 고의로 방해하는 운전자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비켜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박진수 소방경은 "이번 개정안은 차량 운전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국민들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보다 많은 양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긴급차량에 통행 양보하려면

도롯가에 일시정지하거나 옆으로 비켜야

소방차 진로 양보운전 의무 단속을 위한 도로교통법은 언제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1년 6월 8일 개정돼 그해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시·군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긴급 자동차에 대한 진로의무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 그 밖의 영상매체로 입증되는 경우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진로양보 운전 의무 단속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및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돼 화재의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방차의 우선 통행 및 진로위반 차량에 대한 증거를 채집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어떻게 양보해야 하나요?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시키거나 옆으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빨리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실종?… 미리 막아야죠

아동실종예방수첩 무료 제공… 아이 신체특징 등 정보 담아

"아이를 잃어버리는 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잠깐 휴대폰 받는 사이 아이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 얼마나 놀랐던지…"

주부 이성미(37·경기도 부천시)씨는 얼마 전 놀이공원에 갔다가 다섯 살 딸을 잃어버릴 뻔했던 것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놀이공원 방송을 통해 1시간 만에 찾았지만 그 1시간이 지옥이나 다름없었다"는 게 이씨의 얘기다.

그날 이후 이씨는 미아방지목걸이를 구입해 아이에게 걸어주고 아동실종예방수첩도 신청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이다. 흉흉한 뉴스가 들려오는 요즘, 미아나 실종에 대한 공포는 더욱 가중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선 30분에 한명꼴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2만여 건의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고 이 가운데 미발견 건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백여 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발견 실종자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5년간 신고기준 전체 실종자 가운데 51.9퍼센트가 서울(28.8퍼센트)·경기(23.1퍼센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인천·대구가 뒤를 이었다.

특히 14세 미만의 실종아동 건수는 지난해 7월 말 기준 이미 7천 건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아동 미발견 건수는 2010년 연말 기준 누계수치보다 무려 5배 이상 증가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 정보란엔 신체특징·DNA 견본 등 담겨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선 '아동 실종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동 정보와 실종 예방법 등을 담은 아동실종예방수첩을 올 연말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담당 김재성씨는 "신청자들이 많아 추후 무료 배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종아동전문기관 업무를 위탁받아 2005년부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아동실종예방수첩은 혹시 모를 아동의 실종이나 유괴 사건에 대비해 아동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미리 기록해 둘 수

조선DB

지난해 5월 청계광장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최로 '2011 그린리본 희망걷기 캠페인'이 열렸다. 실종아동 찾기와 예방교육을 위한 캠페인이었다.

있는 수첩이다. 실종 시 아이에 대한 필요 정보를 파악하고 가정 내 실종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아동의 사진을 비롯해 신체특징, 손가락 지문, DNA 견본, 가족연락처 등 아동 정보란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이와 함께 유괴범의 유형 및 유괴 상황별 대처방법 등 아동예방 지침, 부모가 알아야 할 유괴 예방수칙 등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9월 어린이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뽀로로 캐릭터를 수첩 디자인에 활용해,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실종예방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작한 실종예방수첩 무료 배포 캠페인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온라인상으로는 4만여 명이, 오프라인으로는 1만여 명이 수첩을 전달받았다. 오프라인은 뽀로로테마파크(신도림, 동탄점)와 코리아CAP센터 교육 후 실종예방수첩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에 한해 무료 배포로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서영 홍보팀장은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미발견 실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실종예방수첩으로 사전에 아동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예방교육이 선행된다면 실종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근희 기자

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 ☎1588-1940

공황장애… '연예인病'이 결코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주원인… '곧 죽을 것 같은 공포감'과 호흡곤란 증세

증권사에 다니는 40대 직장인 최씨는 요즘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평소 건강에 아무 문제 없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발작 증상을 보였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상사에게 보고를 하러 가기 전엔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 한번은 아침회의 시간에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최씨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장애는 갑자기 심한 공포를 느끼며 불안발작과 함께 질식할 것만 같은 호흡곤란, 흉통, 어지러움, 구역감 등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최씨처럼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특정 상황이나 장소에서 공포를 느끼는 '폐소공포증'과 '광장공포증'을 함께 겪기도 한다.

최근에는 연예인이 자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일명 '연예인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연예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공황장애로 진단된 환자는 5만8백81명이었다. 이는 2006년의 3만5천1백48명보다 45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배가량이나 증가했다.

공황장애는 뇌의 '청반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청반핵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다. 이곳에서 신경전달물질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감신경계의 각성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수시로 불안반응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나 수면부족, 카페인 과다 복용 등의 심적, 외적 요인은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킨다.

일러스트·신영훈

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로 완치 가능

공황장애는 발작 시 동반되는 신체증상을 보고 간질이나 심장병, 천식, 뇌졸중 등의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병원을 찾아도 특별한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한두 번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공황장애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증상이 한 달에 2~3차례 반복되거나, 발작이 또 올까 봐 불안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황장애라고 진단한다.

공황장애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 약물치료는 효과가 좋은 편이어서 환자 중 70~80퍼센트 정도가 개선된다. 약물 치료는 6개월~1년 정도 걸린다.

인지행동치료는 공황 상태를 가정해 감정을 조절하는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 등을 통해 불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약물 치료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며 부작용의 염려가 없으며 치료 중단 후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처음 두 달은 일주일에 한 번, 이후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한다.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면 완치율이 높아진다.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과음 등도 외적인 요인인 만큼 관리해야 한다. 운동,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도움이 된다. G

글·손수원 기자

스마트TV 분쟁, 국가경쟁력이 먼저다

'망 중립성' 무시해 국내 동영상 업체 고사시킨 전철 되풀이 말아야

스마트TV를 둘러싸고 제조사와 통신사가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는 스마트TV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다행히 방통위의 중재를 통해 스마트TV를 다시 접속시키기로 했지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도대체 스마트TV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유선 인터넷을 관리하는 통신사들은 사용요금이 정액제인 상황에서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전력 조절 실패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듯이 트래픽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인터넷도 끊겨 IT 생태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이라도 한 아파트 단지에 스마트TV가 여러 대 있으면 다른 가구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상위 10퍼센트의 극단적인 트래픽 유발자들 때문에 무한정 망을 늘릴 수도 없다.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그것은 '망 중립성'이란 원칙이다.

인터넷 사용 초기 미국에서는 연결을 원하는 대학이나 기업이 스스로 선을 깔아 인터넷에 연결했다. 서로 평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 망을 깔아주고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들이 생겼다.

美선 생산자의 네트워크 무료사용 '망 중립성' 철저

인터넷은 포털과 같은 생산자, 중개자인 통신사, 그리고 소비자인 사용자로 나누어졌다. 생산자는 여전히 네트워크를 무료로 썼지만 사용자들은 통신사에 월 사용료를 내는 형태였다.

한때 미국의 포털들과 통신사의 갈등이 있었으나 "생산자는 인터넷을 무료로 쓰고 지나가는 데이터는 간섭받지 않는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확립되었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망 사용료 걱정 없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내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생산자를 장려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이다. 망 중립성은 이렇게 관계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구조가 왜곡되고 말았다. 통신사들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포털들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통신사는 영세한 인터넷 업체 즉 생산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한국 인터넷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한때 동영상 서비스가 인기를 끌자 많은 업체들이 등장했지만 사용자가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어 거의 다 파산하고 말았다. 반면에 유튜브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동영상 업체가 사라진 한국 시장을 미국의 유튜브가 잠식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말았다.

IT 영세업체들에 부담 지워 경쟁력 떨어뜨려

유튜브 서버가 미국에 있어 한국에서 사용하기에는 속도가 느렸을 뿐만 아니라 비싼 국제회선 사용료도 부담이어서 유튜브가 스스로 한국에 서버를 두기로 하고 통신사에게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망을 무료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사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관행에 방해가 될까 봐 유튜브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은 TV 강국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차세대 스마트TV 전쟁이 한창이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TV와 애플TV로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스마트TV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통 방식의 실험이 필요하다.

한국 내에서 다양한 기술이 서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승리한 기술만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 실험을 막는 바람에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스마트TV를 견제하는 이유는 자사의 IPTV 때문이다. 수조원을 들여서 전용망을 구축한 IPTV는 스마트TV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손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스마트TV의 접속을 차단한 것은 통신사 입장에서 절박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통신사들은 자사의 IPTV 때문에 스마트TV를 견제한다. 하지만 스마트TV와 IPTV가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둘 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스마트TV와 IPTV가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둘 다 살아남을 수 없다. IPTV 망을 개방하여 스마트TV에서 IPTV의 실시간 방송을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마트TV에서 IPTV의 유료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 유통망을 개방하여 더 많은 콘텐츠가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수익 분배를 통해 조기에 흑자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스마트TV 문제 해결에 나서 국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사와 생산자들이 상생함으로써만 국가경쟁력을 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망 중립성'을 생각하라

망 중립성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논점은 크게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생산자가 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지만 한국에서는 생산자들이 무조건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생산자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바뀌어야 한다. 동영상 서비스,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망 무료에 기반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서비스들이 한국으로 침투하고 있다.

하지만 망 중립성은커녕 망 사용료 내기에 급급한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그들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망 중립성은 이렇게 한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통신망 증설이 어렵다면 물리망을 분리해서 공기업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망 증설과 유지를 위한 비용은 당연히 사용자들이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인터넷 종량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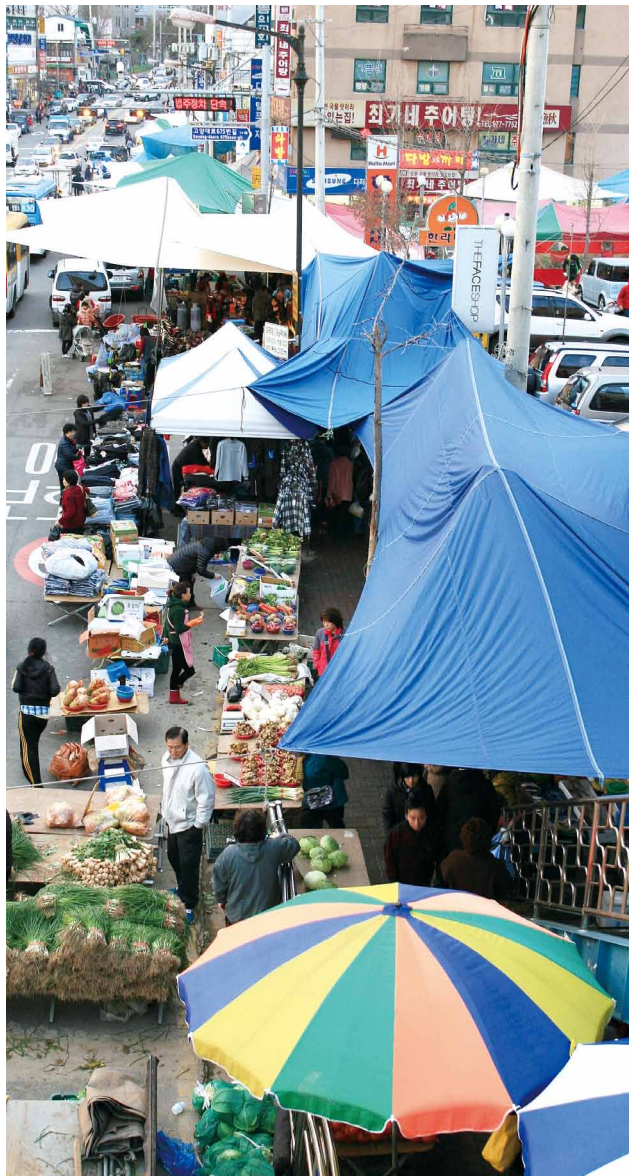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동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태까지 통신사들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무심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

통신사는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익을 주주 배당으로 돌리기보다는 망 증설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해결책을 스스로 강구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에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G

글 · 김인성 (IT 칼럼니스트)

1백년 전통의 5일장 고양 일산장

“삶이 힘들 땐 왁자지껄 장터에 가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장은 성남 모란장과 함께 수도권 신도시에 남아 있는 대표적 5일장 중 하나이다. 끝자리가 3, 8일로 끝나는 날 장이 서는데, 근방의 장사치들이 모여드는 새벽녘부터 저녁 해거름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성남 모란장과 함께 수도권 신도시에 남아 있는 대표적 5일장 중 하나인 고양 일산장. 1900년대 초 경의선이 개통되어 일산역이 세워지면서 큰 시장이 들어섰다.

수도권 신도시의 일산역(등록문화재 제294호) 근방에는 아직도 1백년 전통의 5일장이 선다. 일산장은 조선시대 초기까지 지방에서 열리던 향시(鄕市)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있는데, 1770년(영조 46)에 완성한 조선의 문물제도 백과사전〈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의하면 고양시 일대에서 3일과 8일로 끝나는 날에 열리던 향시 사포장(巳浦場)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일산 신시가지에 속한 옛 송포면의 사포장은 고양시를 대표하던 장터였다. 하지만 사포장이 사라지고, 이후 1908년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어 물자 수송이 용이해지면서 일산장이 등장한 것이다. 현재는 1933년에 세워진 구 일산역 앞쪽에서부터 현대식 상설 점포가 자리한 일산사거리를 에돌아 도로주변을 따라 장터가 꾸려진다.

5천여 평의 장터에 크고 작은 노점과 가게들이 늘어서는데, 농산물과 수산물·의류·잡화·생활용품 등 ‘없는 것만 빼놓고 다 파는’ 아쉬울 것 하나 없이 구색을 갖추고 있다.

경기 5일장을 돌고도는 돌뱅이 장꾼들

특히 자전거를 타고 가며 태극기를 파는 아저씨, 파리약·쥐약·끈끈이까지 갖춰 놓은 잡화 가판대, 도장 파는 아저씨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와 강아지를 파는 동물장사치들까지 한편에 자리해 사라져 가는 시골장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경의선 국철 일산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역사를 빠져나오니 벌써 구 일산역 앞 작은 광장에서부터 왁자지껄한 장터분위기로 절로 신명이 난다.

스피커에서 뽕짝뽕짝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자 검은 ‘봉다리’ 하나씩을 뒤춤에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걸음걸이도 얼씨구절씨구 춤을 추는 듯하다.

구 일산역 앞 작은 공터에 행거로 노점을 그럴싸하게 꾸며 놓은 장꾼어미가 ‘샤방샤방한’ 예쁜 옷들을 걸어 놓고 마실 나온 할머니들의 손을 잡는다. 또 그 곁으로 공터 한편에 호미, 쇠스랑 등 농기구며 철물을 풀어 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철물장꾼도 손님맞이가 한창이다.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시장의 모습. 형형색색의 이불과 빨간 파라솔이 어우러져 작은 꽃밭을 보는 듯하다.

철물장꾼 정창익(51)씨는 1일은 문산장(경기 파주), 2일은 강화장(인천 강화군 강화읍), 3일은 일산장, 4일은 광적장(경기 양주), 5일은 적성장(경기 파주)이나 감악산 신산리장 등 경기도권 5일장을 돌고 도는 돌뱅이 장꾼이다. 옛 시절 우리 아버지들처럼 그 역시 운수 좋은날을 기다리며 장에 나선 지 만 3년째가 되었다.

“어이쿠 어르신네, 올만인 갑소. 지난번 사간 쇠스랑은 말 잘 듣는 갑소?” 농사철이나 가을걷이까지는 간혹 시골 어르신들이 손에 익은 옛 농기구 등 철물을 종종 찾는데, 그에게는 귀하디귀한 단골 손님이다. 그래 그나마 5일장이면 어김없이 마실을 나서는 낯익은 얼굴이 그지없이 반갑다. 매일 아침나절 1톤 트럭에 짐을 싣고 집을 나설 때면 기운이 절로 난다는 장꾼 정씨. 그가 ‘운수대통’을 기대하며 내일의 희망을 꾸릴 수 있는 이유이다.

장터 골목 구석구석에 장꾼들이 판을 벌이자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장사에 이골이 난 엿장수는 특유의 신명으로 엿가락을 치며 손님을 불러 모은다. 또 장의 한가운데에 규모 크게 터를 잡은 생선가게와 과일가게는 오고 가는 손님을 붙들어 세우고 이력이 붙은 흥정 솜씨를 뽐낸다.

벌써 20년 훌쩍 넘게 5일장을 돌며 민속공예품을 파는 풍물 장꾼 이두선(50)씨 역시 1톤 트럭에 민속품을 내어 걸고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다. “어느 때는 잘 벌고 어느 때는 못 벌고, 누구는 잘 벌고 누구는 그저 그렇고 하지요. 자꾸 자빠지고 고꾸라지는 듯하지만, 그나마 장에 나서면 사람 사는 세상인 듯하여 좋습니다. 무일푼으로 와도 일할 수 있고 열심히만 하면 돈도 모을 수 있는 곳이 장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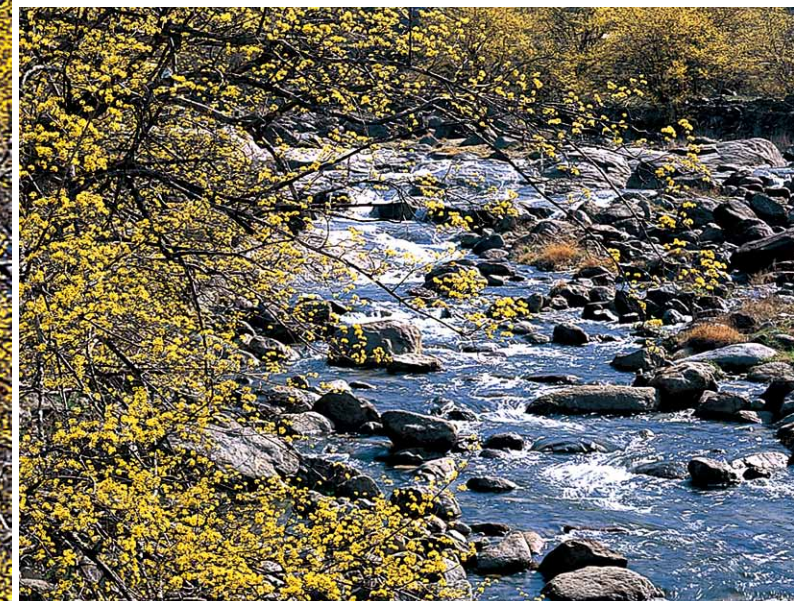
삼십대 초반부터 장을 돌기 시작했다는 그는 “5일장이 예전만큼의 재미나 호황은 아니어도 딱히 궁색하다고 할 것도 없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덧붙인다.

향수와 함께 오늘을 담아 숨쉬는 장터풍경

그 순간, 장터 한편에서 ‘뻥이요’ 하는 소리와 함께 뻥튀기가 터지자 지나가던 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어린 아이들은 귀를 막고 놀란 듯 신기하게 바라본다.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인 자녀와 함께 일산장을 찾은 주부 양원정(37)씨는 “장이 서는 날에 들러 옛 추억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상품의 질과 가격도 좋지만 야채든 과일이든 덤으로 주는 푸짐한 인정과 어린 시절 장터의 모습이 그리워 자주 찾아오게 된다”고 5일장의 매력을 털어놓는다.

장터는 시대의 자화상이라고들 말했었다. 그래서 장터에 나서면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장터를 가웃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미 지나간 시절의 잊힌 향수와 그 시절 장터의 신명과 흥을 더듬어 본다.

이제는 조금 변해 버린 5일 장터 풍경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과 현재의 자화상을 함께 그려 본다. 5일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민속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장터는 여전히 살아 숨 쉰다.

글과 사진·이강 (여행작가)

'꽃대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구례 상위마을. 이곳에선 3월 22일부터 4일간 산수유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산수유는 2월말부터 꽃봉오리가 터지면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

전남 구례

샛노란 산수유와 하얀 매화 섬진강 따라 봄이 옵니다

여행자들에게 봄은 언제나 설렘의 대상이다. 지금처럼 지루한 겨울이 지나가고 시나브로 봄이 올 때면 더욱 그렇다. 꽃은 피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은 꽃밭을 뒹굴고 있다. 누구보다 빨리 봄을 만나고 싶다면 이른 꽃구경을 나서야 할 일이다.

봄은 풍경을 바꿔놓는다. 봄바람이 간질거리기 시작하면 섬진강은 껴안고 싶을 만큼 포근하게 변한다. 새싹이 가녀린 나뭇가지를 뚫고 나오기 시작할 즈음 버선목처럼 희게 피어나는 매화와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지리산 자락을 물들이는 산수유야말로 남도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소식이다.

곧이어 개나리, 진달래에 이어 하늘거리는 벚꽃과 진분홍빛 철쭉이 산자락과 강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필 것이다. 그것들의 자태는 오롯이 상춘객을 즐겁게 하는 것이니 이 모두 봄날의 섬진강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다.

지금 섬진강은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눈만 돌리면 강변을 따라 만개한 봄꽃을 눈에 넣을 수 있다. 야트막한 돌담 너머로 계곡 사이사이에 산수유가 봉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산수유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봄소식을 알리는 매화가 지천으로 하늘거리고 제법 키가 자란 보리가 남도의 봄을 장식한다.

남원에서 고속도로 같은 19번 국도를 타고 밤재터널을 지나면 곧장 구례 땅이다. 밤재터널을 나서자마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샛노란 산수유꽃이다.

산수유꽃은 3월초부터 피어 중순에 만개

길가와 마을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산기슭과 골짜기, 돌담과 논길 등 눈길 닿는 곳마다 노란 꽃구름이 내려앉은 듯하다. 지리산 노고단과 만복대의 산머리에는 아직도 잔설이 남아 있지만 산자락에 등을 기댄 상위마을은 눈부시게 화사해진다.

산수유는 이른 봄에 노란색의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다년생

나무다. 얼음이 채 녹기도 전인 3월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4월초까지 노란꽃이 핀다. 꽃은 그 모양이 아름다워서 관상수로 많이 재배되고 노랗게 피어난 꽃은 11월에 루비보석 같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산수유 열매는 빨간 육질과 씨앗을 분리해 차, 술, 한약재의 재료로 사용한다.

사실 산수유꽃은 꽃잎이 2밀리미터가량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낱낱의 꽃송이는 화려하지 않다. 산수유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그만 꽃송이가 눈꽃처럼 송글송글 맺힌 모양새다. 하지만 수십 수백 그루씩 무리를 지은 산수유나무가 한꺼번에 노란 꽃부리를 활짝 펼치면 벚꽃에 뒤지지 않을 만큼 화사하고 아름답다.

상위마을은 3월 중순경이면 산수유나무에 파묻힌다. 몇백 년씩 묵은 산수유나무들이 만개하면 마을은 온통 노란 꽃 세상으로 바뀐다. 마을 뒤편에는 눈 덮인 지리산 연봉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마을 오른편에는 작은 골짜기가 펼쳐져 자연경관 또한 매우 아름답다.

지리산과 섬진강에 봄이 온다는 것, 그것은 남도의 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봄의 선물로 이어진다. 진안 팔공산에서 발원해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광양, 하동으로 약 5백30리(2백8킬로미터)를 유장하게 흐르는 섬진강. 섬진강의 사계를 따지는 일이 부질없는 일이지만 봄 섬진강이 좋은 이유는 따뜻함과 포근함이 어려 있기 때문이다.

보성강과 만나 합수머리를 이루는 곡성군 압록부터 강폭을 넓혀 구례, 광양을 거쳐 하동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봄 풍경은 남도의 제1경으로 추켜도 손색이 없다.

그중 구례는 자연과 하나 되는 여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예로부터 구례군 산동면은 산수유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산수유 열매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산수유나무가 많은 곳이다. 이곳에 산수유가 많은 이유는 지리산 자락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다.

자연과 하나 되는 봄맞이 명품 여행지

산수유나무는 해발 2백~5백미터의 분지나 산비탈이 가파르고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더 잘 자란다. 산동면 일대는 땅에 물기가 많고 볕이 잘 들며 바람막이가 잘되는 곳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동면의 계천리, 대평리, 위안리 등지에는 산수유 고목이 숲처럼 우거져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리산 만복대의 서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위안리 상위마을은 가장 대표적인 산수유마을이다. 신기하게도 상위마을 일대는 새벽에도 안개가 끼지 않는다. 안개가 없어 일조량이 많고 꽃도 다른 곳보다 훨씬 화사하게 피어난다.

산수유는 두 얼굴의 꽃으로도 유명하다. 봄날에는 온통 노란빛이지만 가을이 오면 루비보석처럼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태어난다. 또한 산수유나무는 '자식들 공부시키는' 나무로도 유명하다. 열매는 중요한 한약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산수유 서너 그루만 있으면 자식 대학을 보낼 정도로 고수익이 보장되던 때도 있었다.

산수유가 만발한 3월의 상위마을 풍경(왼쪽 사진). 구례의 숨겨진 비경으로 손꼽히는 사성암. 오봉산 절벽에 자리잡고 있다.

올해는 산동마을 지리산 온천지역 일대에서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산수유 축제가 열린다. 산수유꽃 개화시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상위마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월부터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산수유꽃축제 정보도 알 수 있다.

구례까지 갔다면 섬진강 드라이브를 빼놓을 수 없는 일. 구례읍 맞은편에 숨어 있는 사성암을 찾아가자. 사성암은 섬진강과 지리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광경이 일품이다. 바위를 쪼아 그 돌로 축대를 쌓고 법당을 만들었는데 암자 자체가 거대한 탑처럼 생겼다.

법당 뒤로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넓이로 길이 나 있다. 이 길은 동굴로 이어진다. 도선스님이 수도했다는 도선굴이다. 특히 원효대사가 좌선했다는 좌선대가 사성암의 전망 포인트. 이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득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절경이다. 이곳에서 암자를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새롭게 펼쳐지는 지리산과 섬진강의 절경에 눈이 즐거워진다.

남한 3대 길지의 양반가옥 운조루 · 화엄사도 볼거리

구례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화엄사와 운조루다. 화엄사는 구례읍에서 동쪽으로 약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지리산에 안겨 있고 544년(백제 성왕 22)에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울창한 숲과 계곡을 따라 화엄사 경내에 이르면 화엄사 천왕문이 나온다. 화엄사의 가람배치를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고, 화엄사의 상징 각황전 법당도 둘러볼 만하다. 각황전은 국보 제67호로 지정된 매우 유명한 건물로 현존하는 목조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각황전 앞마당에 서 있는 국보 제12호 석등은 높이 6.3미터, 직경 2.8미터로 통일신라시대 불교 중흥기의 찬란한 조각예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구례 토지면에 있는 운조루는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양반 가옥이다. 건축 당시엔 99칸이었으나 지금은 60여 칸만 전해진다. 일부가 소실되었지만 거대한 기와집의 기품이나 풍치는 여전하다.

운조루에서 관심 있게 볼 건물은 가옥의 사랑채. 대청과 누마루가 공존하는 궁궐 건축양식을 따랐지만 공포와 같은 장식 요소를 최대한 생략해 소박하고 단아한 건축미를 보여준다. 대문에 걸린 호랑이 뼈와 안채 마당에 있는 돌거북도 찾아보면 재미있다. 풍수지리를 언급할 때 남한 3대 길지로 유명하고, 현재는 후손들이 살고 있다. G

글과 사진 · 유철상 (여행작가)

섬진강 백사장. 봄날이면 백사장을 걷는 여행객들이 많다(위 사진). 섬진강변의 오래된 맛집 '천수식당'의 눈치회무침(아래 왼쪽 사진). 운조루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반 가옥을 구경해볼 수 있는 곳이다.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함양분기점에서 88고속도로를 이용해 남원IC로 빠져 나와 남원에서 고속도로 같은 19번 국도를 타고 밤재터널을 지나면 구례 산동면이다. 산동면에서 지리산온천랜드를 지나 직진하면 산수유마을.

주소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459번지 ☎061-783-9114

홈페이지 산수유마을 www.sansuyoo.net

먹을 곳 **한옥가든**(☎061-783-7079)은 산동의 한식집. 지리산 일대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과 봄나물이 한상 가득 올라오는데 반찬만 20여 가지가 넘는다. 여기에 굴비, 냉이된장찌개, 산채무침, 돼지편육 등이 더해지는 진수성찬이다. 산채비빔밥 7천원, 흑돼지구이 1만2천원. 구례구역 섬진강변에 있는 **천수식당**(☎061-782-7738)은 참게탕과 눈치회무침으로 소문난 맛집. 3월 섬진강의 별미인 눈치회무침은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내는데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열무김치, 호박나물, 토란무침 등 10여 가지 반찬이 나오고 민물새우와 시래기를 넣고 끓여낸 참게탕도 입맛을 돋운다. 눈치회무침(소) 3만5천원, 참게탕(2인분) 3만원.

잠잘 곳 상위마을 아래에 대규모 온천단지가 형성돼 있지만 원탕은 지리산온천랜드. 게르마늄이 함유된 유황천으로 온천욕을 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촉감 때문에 기분이 상쾌해질 정도. **지리산온천관광호텔**(☎061-783-2900)은 전 객실에 온천수가 공급된다. 객실료는 온돌방 15만원, 입욕료 8천원(투숙객 50퍼센트 할인).

“참으로 민망할 따름입니다”

일러스트·유재일

이성계 사촌동생으로 개국공신에 책봉
무장 출신이지만 행정에도 뛰어난 능력 보여
태종도 재능을 아껴서 영의정까지 올라
79세에 간통한 첩에게 희극적 최후 맞아

이지(李枝 ?~1427년)는 여말선초의 인물로 이성계의 사촌동생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성계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줄곧 이성계의 곁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이성계가 장수로서 공을 세울 때 이지는 항상 앞장서서 싸웠다. 황해도 해주에서 이성계가 왜구와 맞서 싸운 적이 있었다. 이때 이지가 선봉에 서서 수많은 왜구들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특히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할 때는 기병 수백 명을 이끌고 이틀 거리인 영풍의 이성계 사저를 하루 만에 달려가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이성계가 회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당연히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개국공신으로 책봉받았고 무장이면서 행정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이조·호조·예조의 판서까지 두루 역임했다. 이재(吏才)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지도 이성계 진영을 일망타진한 1차 왕자의 난으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방원(후에 태종)은 이지의 사람됨이 온화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단 유배를 보냈다가 자신이 즉위하자마자 이지를 유배에서 풀어주고 중용했다. 사람 보는 데 일가견이 있던 태종은 그 후 이지를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으로 임명했다.

이지는 이성계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실록에는 매년 연말이 되면 죽은 부모를 위하여 절에 가서 부처를 공양하고 재(齋)를 올리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실록에 따르면 그의 최후는 전형적인 희비극이다. 세종 9년(1427년) 당시로서는 대단히 장수한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후 사정이 특이하다.

이지는 어린 후처 김씨와 함께 절에 가서 머물렀다. 그런데 밤에 김씨가 그 절의 중과 간통을 하다가 이지에게 발각된 것이다. ‘이지가 간통하던 장소에서 김씨를 붙잡아 꾸짖고 구타하니 김씨가 이지의 불알을 끌어당겨 죽었다.’ 왕실 출신으로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의 죽음치고는 참으로 민망한 최후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절에 따라간 사람들이 모두 김씨의 노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한 노비가 충청도 절제사로 나가 있던 아들 이상흥이 부고를 듣고 왔을 때 은밀하게 그 사실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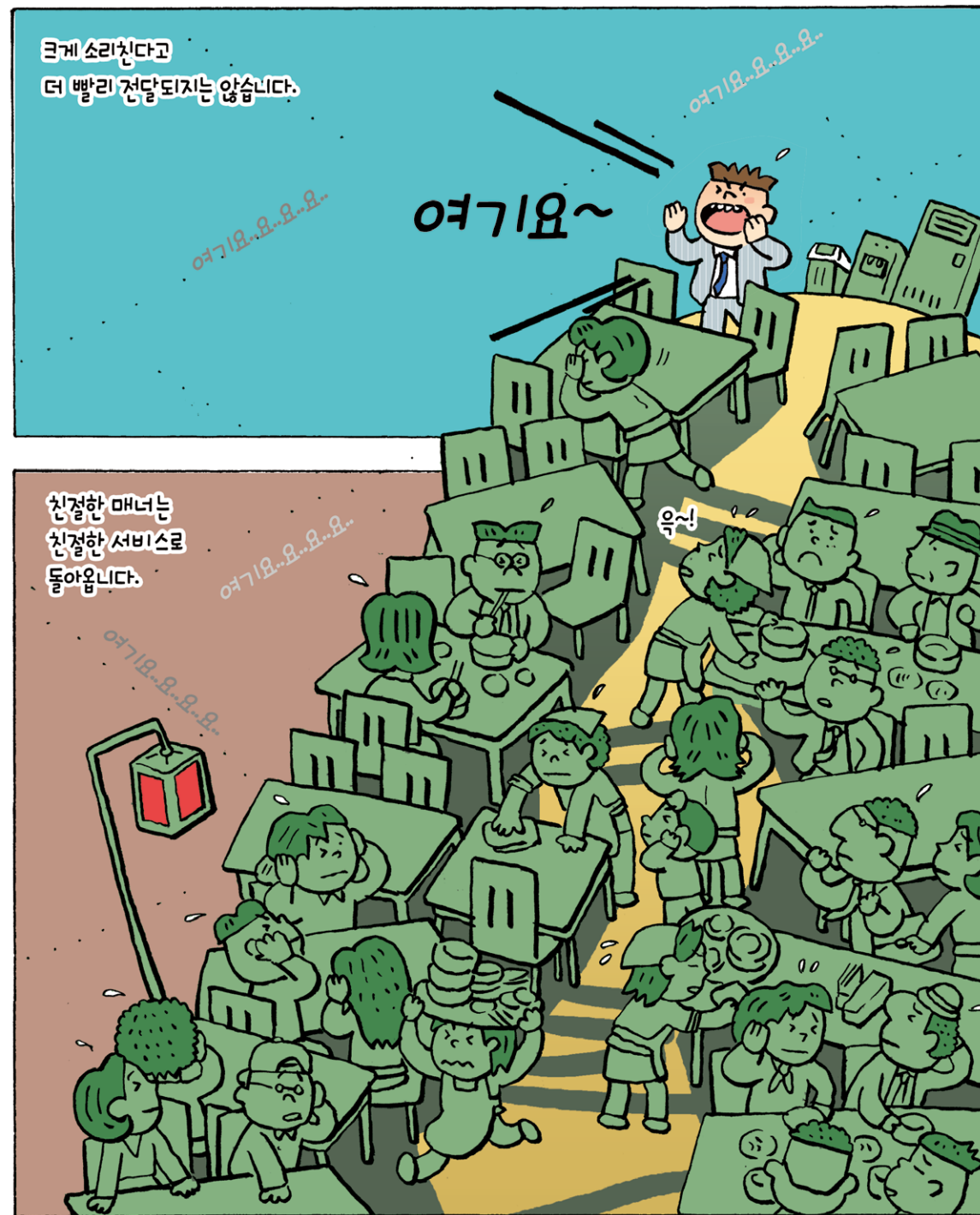
주변에서는 “서둘러 형조에 알려 시체를 검시하면 원통함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상흥에게 관아에 고발할 것을 권했다. 한편 김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광하여 바보천치가 되었다고 한다. 이상흥은 고민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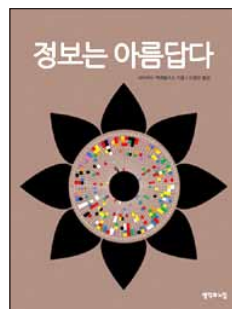
결국 이상흥은 그냥 묻고 지나갔다. 아마도 관아에 고발할 경우 오히려 아버지의 민망한 죽음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계모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머니인 김씨가 곤경에 처하는 것이 이상흥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이상흥의 이런 결정에 대해 유교적 시각에서 집필된 실록은 극도로 비판적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용납되지 못할 사람이다.’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G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주문 메아리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충만

〈정보는 아름답다〉

보기 편한 정보가 이해도 쉽다

데이비드 맥캔들리스 지음
이정인 옮김
생각과느낌 펴냄 · 3만3천원

정보가 넘쳐난다. 기존 매체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인터넷 활용이 일상화하면서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채는 일이 쉽지 않다. 걸러내고 비교·검증해서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를 가늠하는데 개인이 이런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데이비드 맥캔들리스는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하나 던졌다. "시각화를 하면 어떨까?"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정보는 아름답다〉이다. 지은이는 '시각화'라는 현자의 돌로 정보의 연금술을 펼친다. 될 수 있는 한 글자를 줄인, 그래프와 지도로 가득한 책을 선보였다. 아름답다고 한 것은 지은이의 자부심일 터. '보기에 좋더라' 정도로 칭찬할 만한 수준은 분명하다.

이 책은 뛰어난 교사가 강의하다가 내용을 잘 전달하려 칠판에 도표를 그리는 상황을 연상하면 딱 맞다. 말이 많고 글 내용이 장황하다고 해서 이해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는 한편의 그림이나 도표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장황한 정보 간단히 전달하는 방법 선보여

'좌파 우파' 항목만 보아도 그렇다.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문고본 한 권 정도는 족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은이는 두 쪽으로 펼쳐진 도표를 통해 이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낸다. 도표라 오히려 좋은 점은 비교 항목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회와 문화' 항목을 꼽을 수 있다. 우파는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좋다는 현상유지를 기조로 삼는다. 좌파에는 더 나은 세계가 가능하다는 유토피아주의가 깔려 있다. 우파는 배제, 안정, 민족주의를 좌파는 포용, 다문화, 발전을 키워드로 삼는다. 우파는 개인의 도덕에 기초한 공동체를, 좌파는 사회적 윤리에 기초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단순하지만 핵심사항을 잘 요약해놓았다.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해서 내용을 더 극적으로 바꾸는 예도 있다. '바닷물이 밀려온다!'는 몇 년 후에 도시들이 바다에 잠길지를 예측한 항목이다. 베네치아는 1백년 후에, 상하이는 4백년 후에, 뉴욕은 1천년 후에 바다에 잠긴다. 이 건조한 내용을 도표와 그림으로 표현해 위기감이 훨씬 크다. 거기에 덧붙여 세계지도를 80년 뒤, 8백년 뒤, 8천년 뒤 항목으로 제시해놓았다. 이 그림을 보면 온난화 현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내용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커피의 종류' 항목은 다양한 커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게 한다. 마로키는 에스프레소+초콜릿 파우더+우유거품으로 이루어졌다.

정보과잉 시대의 현대인에 신선한 자극

많이 마시는 카페라테는 에스프레소+따뜻한 우유+우유거품이다. 역시 많이 마시는 카페모카는 약간 복잡하다. 에스프레소+초콜릿 시럽+따뜻한 우유+휘핑크림이다. 아이리시는 에스프레소+물+위스키+휘핑크림이다. 크라파는 인스턴트 커피+물이니, 앞으로 "다방커피 마신다" 하지 말고 "크라파 즐긴다"고 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흥행에 성공한 할리우드 영화 항목도 도표로 그리면 관련정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로선은 상업적 성공기준을 뜻한다. 수익률이 3백퍼센트 정도 나야 성공했다 본다.

세로선은 볼 만한 가치 기준을 뜻한다. 각 영화의 장르는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했다. 2008년 흥행에 참패하고 작품성도 최악이었던 작품으로는 〈러브 구루〉와 〈컬리지 로드 트립〉을 꼽을 수 있다. 흥행도 대박 나고 작품성도 뛰어났던 작품은 〈슬럼독 밀리어네어〉였다.

물을 흐르게 그냥 두면 쓰임새가 거의 없다. 모아 저수지에 가득 채워놓으면 쓸 데가 많다. 정보과잉의 시대를 살면서 정보를 더 쓰임새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단 〈정보는 아름답다〉를 보면서 시각화, 도표화, 체계화의 미덕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나만의 정보 처리법을 마련하면 좋을 성싶다. G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글과 그림 · 최영순

가정의 단란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기쁨이다.
– 페스탈로치

휘트니 휴스턴과 패티김

패티김은 휘트니 휴스턴의 오랜 팬이다. 휘트니 휴스턴과 스물다섯 살 차이로 거의 딸뻘이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 한동안 휘트니가 활동하지 못했을 때 컴백하기를 학수고대했다고 한다. 패티김은 실제로 2010년 휘트니 휴스턴 내한공연 때 맨 앞자리 티켓을 샀고, 공연장에서도 신이 나서 환호하고 따라 불렀다.

나이 든 은발의 관객이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신기했는지 휘트니는 앞으로 나와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관객들에게 돌아서서 모습을 보여주라고 요청해 패티김이 돌아섰더니 객석에서는 함성이 터졌다. 둘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패티김은 "아마도 휘트니는 내가 가수인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휘트니가 전성기의 목상태가 아닌 데다 이날 감기에 잔뜩 들어 제대로 노래하지 못하자 공연 내내 가슴 졸이며 봤다고 한다.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전성기 때의) 소리가 나오지 못하면 가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 심정은 임진모씨 같은 평론가는 몰라요. 노래해본 사람만이 그걸 알지요. 저도 무대 나가기 전에는 항상 거울 앞에 15분 서 있는데 불안해서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제발 지진이라도 나서 공연이 취소되었으면 하고 바란 적도 부지기수였어요."

죽음과 은퇴… 팬들 가슴에 그들의 음악은 영원

지난 2월 12일 아침 휘트니 휴스턴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전 세계의 음악팬들은 한동안 멍한 상태였다. 은은하게 퍼져가다가 고음으로 치솟으며 시원한 맛을 주는 그 절창을 더 이상 못 듣는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인이 약물중독이든, 신경안정제를 술과 함께 복용해서였든, 심장마비나 색전증이든 우리가 매직 보컬, 세기의 가창, 사상 최고의 보이스를 잃은 것은 분명하다.

패티김은 휘트니 사망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한다. 딱 3일이 지난 후 그는 가수 은퇴 선언을 했다. 아직도 노래할 수 있는데 은퇴를 결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이가 들면 성대도 늙는다는 진리를 알기에, 미련은 남지만 노래를 잘할 때 그만두는 것이 옳다는 판단 아래 용단을 내렸고 실은 10년 전부터 고려해왔다고 한다. 전성기 시절의 멋진 모습으로 기억되고자 하는 예술가의 순수 욕망일 것이다. 은퇴 기자회견장에도 자신의 히트곡 제목을 빌린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표현이 내걸렸다. 은퇴 전국순회공연의 타이틀도 '이별'이다. 팬들 입장에서는 휘트니 휴스턴과 이별했고 패티김과도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한꺼번에 글로벌 스타, 그리고 한국의 별과 헤어지게 된 것이다.

두 사람에게는 음악적 공유점이 있다. 둘 다 성인층에게 호소하는 이른바 스탠더드 음악을 한다. 패티김은 트로트와 신민요만이 있던 1960년대에 서구적 세련미를 더한 스탠더드 음악을 국내에 소개하고 꽃피운 인물이다. '한국에서 자신이 상류층이라면 좋아하는 가수는 패티김이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휘트니 휴스턴도 팝 메탈, 마이클 잭슨의 흑인 댄스음악, 유투(U2)의 록이 판도를 장악한 1980년대 중반 기성세대가 마땅히 들을 음악이 없던 시절에 스탠더드 음악을 들고 등장했다. 1988년 4월 빌보드 싱글차트 사상 최초로 7곡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수퍼스타덤이 연출됐다. 이후 나온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을 비롯한 디바는 모두가 휘트니 휴스턴에게 빚진 가수들이다.

위대한 목소리를 상실하고, 화려하게 무대를 휘젓는 모습을 더 이상 못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남긴 명곡들은 수두룩하다.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나 '사랑은 생명의 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팬들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이 있어 음악은 음악가의 짧은 생을 넘어 불사, 불멸한다.

글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